

1991
성도의 빛 I 2

말일성도
예수그리스도
교회



성도의벗 I 2 1991



— 표지 설명 —

전세계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아기 예수의 탄생에 관한 장면은
그들 창조주의 문화와 전통을
경축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탄생 장면”
34쪽 참조
사진 : 스티브 번더슨

— 어린이란 표지 —

사진 : 스티브 트리글

일 반

대관장단 성탄절 인사	1
대관장단 메시지 : 예수 그리스도—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하나님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	2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수잔 이스턴 블랙	6
요셉 스미스가 우리 집에 오셨을 때 로레인 리차드슨	21
가해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 지니 랭캐스터	22
장막의 가치 브르스 시 헤이폰	26
그리스도의 탄생 장면	34
이상적인 성탄절 엠 시 오브라이언트	40
조그만 동전 세 개 리차드 에이 랍	44
볼짜노에서 보낸 성탄절 페트릭 손 흡킨스	46

청 소년 란

약속 래리 에이 힐러	10
성탄절에 있었던 일 렉스 디 피네가 장로	18

정 기 특 별 기 사

방문 교육 메시지 : 결합하여 강하게 성장함	25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메시지 : 이 성탄절에는 한인상 장로	65
교회 및 지역소식	66

어 린 이 란

물몬경 이야기 : 림하이 왕과 그의 백성의 탈출	50
“나를 따르라” : 대관장단 성탄절 메시지	52
노래 : 강보의 아기는 누구일까? 마벨 존스 가보트와 마이클 필린스 무디	53
“사관에 있을 곳” 리네트 케이 앨런	54
12일 동안 선물주기 제프 테일러	57
예언자의 옷을 세탁한 소녀 낸시 비 풀러	58
함께 나누는 시간 : 여러분 자신을 주십시오 로럴 롤핑	60
어린 친구들을 위하여 비버리 워백 엘스트롬	62
성탄절 공예품 콜리스 클레이튼	64

1991년 12월호

성도의 벗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판 출판물임. 본 잡지는 한국어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월간-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사모아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영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중국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및 핀란드어.
 격월간-인도네시아어, 타이어, 타히티어.
 계간-아이슬란드어.

대관장단: 에즈라태프트 벤슨,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십이사도 평의회: 하워드 더블류 헌터,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워스린, 리차드 지 스크트

고문: 렉스 디 피네가, 진 알 쿡, 존 에이치 그로버그, 로버트 이 웰즈

통 권: 제309권, 제28권, 제12호
등록: 1967년 10월 5일, 라-3166
발행일: 1991년 12월 1일 (월간지)
발행인: 한 인 상
편집인: 홍 무 광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 우체국 온라인 010041-0024704-11
 • 은행 지로 번호 3001543

인쇄인: 영 인쇄 주식회사 이 세 용

© 1991년 재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성도의 벗 1년 구독료는 5,000원입니다. 권당 500원이며, 성도의 벗 해외 구독일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등) 12,000원, 2지역(필리핀, 중국 등) 16,200원, 3지역(중동 등) 23,200원, 4지역(중남미 등) 26,000원이며 우송료는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와드 / 지부와 카드 번호를

출판부(☎ 738-6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 SONGDO-UI POT(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ah 84150.

Second-clas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ubscription price \$9.00 a year. \$1.00 per single copy.

Thir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When ordering a change,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changes cannot be made unless both the old address and the new ar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Church Magazines,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nited States of America
 Subscription information telephone number 801-240-2947.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ONGDO-UI POT at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nited States of America

© 1991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International Magazine 91992 320

Printed in Korea 12/91



대관장단 성탄절 인사

세 계가 급변하는 가운데 맞이하는 이 성탄 절기에 우리는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오직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만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 봅시다.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떼를 돌보고 있던 겸손한 목자들에게 한 천사가 나타나서,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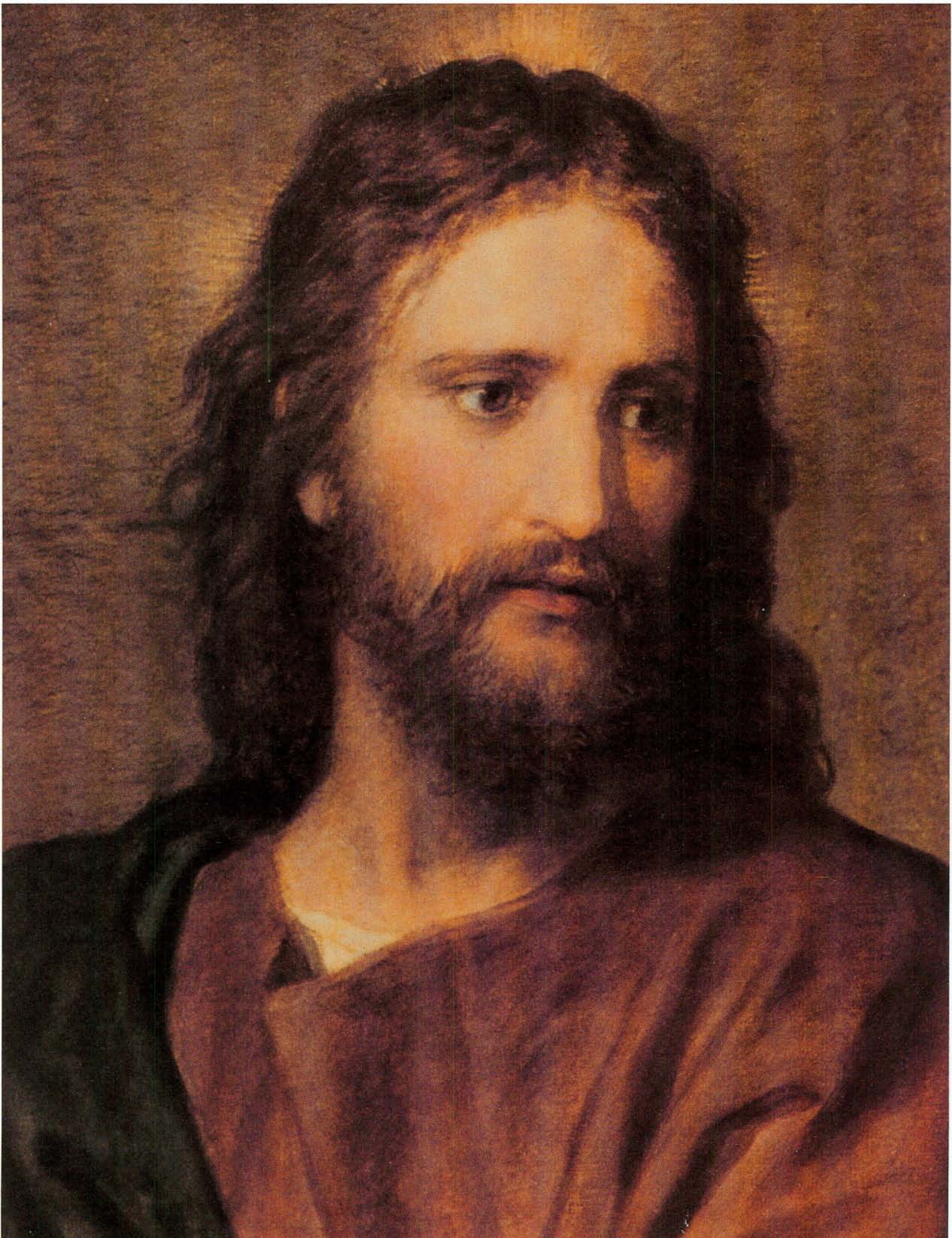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누가복음 2: 10~11)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때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누가복음 2: 13)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누가복음 2: 14)라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전세계 기독교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경축하는 이 영광스런 때에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며, 또한 이 성탄 절기에 우리 모두가 세상 사람들에게 영원한 화평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좁은 길로 인도해주는 그리스도의 복음 원리에 따라 생활하기로 다시 한 번 다짐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예수 그리스도 -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하나님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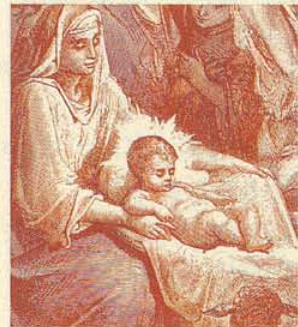
계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일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침례 요한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약 4,000년간 의로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언된 대로 탄생하실 날을 기다려 왔습니다. 수많은 예언자들이 그 사건을 예언했으며, 희생 제물과 상징 및 여러 가지 표적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예시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보통 사람들의 탄생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필멸의 육신을 가진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셨지만, 아버지는 필멸의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성구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셨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성신의 능력으로 덮이여 잉태되어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뱀핌 그릇이요 청결한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나시리라.”

(엘마서 7 : 10)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을 입으신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며, 필멸의 육신을 갖고 있는 처녀 마리아가 어머니이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만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독생자”(요한복음 3 : 18)라는 칭호를 듣기에 합당합니다.



예수님은 필멸의 육신을 가진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셨지만, 아버지는 필멸의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을 입으신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부친으로 두셨기 때문에 이제껏 이 지상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갖지 못하였으며, 앞으로도 갖지 못할 권능을 갖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 곧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따라서 경전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절름발이를 걷게 하시고 소경이 눈을 뜨게 하시며 마귀를 내어 쫓으시는 등 많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우리가 영생하도록 이끌어 주는 끊임없는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요한복음 4:14)고 하시면서, 또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요한복음 6:58)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곧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죄의 짐을 짊어 지실 수 있으셨습니다. 이사야는 구세주께서 그 짐을 기꺼이 짊어 지실 것이라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예언했습니다. “실로 우리의 죄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이사야 53:4~5)

예수께서 세상 사람들의 죄를 자진해서 짊어지신 그 성스럽고도 비이기적인 행동을 속죄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진다는 것은 필멸의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속죄하셨다는 사실을 압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인간이 회개하면 고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나 하나님이 만민을 위하여 이미 고난을 겪었느니라.

“그러나 저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겪은 것같이 고난을 겪어야 하리니

“그 고난은 하나님이요 모든 자보다 가장 위대한 나를 고통으로 떨게 하였고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게 했으며 육체와 영혼이 다 괴로움을 당하였으므로 그 쓴잔을 마시지 않고 물려서려고 까지 하게 하였느니라.”(교리와 성약 19:16~18)

예수님은 매우 고통스런 가운데에서도 그 쓴 잔을 들어 마심으로써 우리의 고통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박해자들의 굴욕과 모욕을 아무 불평이나 보복없이 견디셨고 채찍질과 십자가에 달리시는 가혹한 처형이라는 치욕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곧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오직 그분만이 부활의 권능을 갖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무덤에 누이신 지 삼일째 되던 날에 예수님은 무덤에서 나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본 증인들이 있으며, 이 경륜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저 역시 오늘날 특별한 증인이라 불리우는 사람들 중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살아 계십니다. 주님이 글자 그대로 부활하셨다는 진리보다 제가 더 확신을 갖고 있는 진리나 사실은 없습니다.

구세주께서 무한하신 사랑으로 기꺼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저는 다음 찬송가 가사를 인용하여 주님께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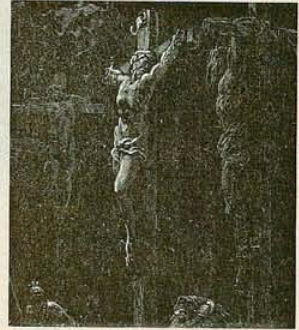
예수께서 배푸신 사랑에 놀라며
주 내리신 큰 은혜에 나 당황하네
이 죄인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큰 사실을 알 때 맘 심히 떨리네
주 거룩한 보좌를 버리고 내려와
나와 같이 오만한 영혼을 살리려
주 하나님 넓으신 사랑을 배푸사
속죄하고 정결케 하여 주시었네
오 나를 사랑하여 죽으신 그 일
놀라운 일일세
주님의 업적은 훌륭하시라
(예수께서 배푸신 사랑, 찬송가, 111장)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대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마태복음 24:38)하는 사악한 시기에 오실 것이며, 대격변과 환난으로 “온 세계가 동요할”(교리와 성약 45:26) 날에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을 때 도적 같이 오실 것입니다.(베드로후서 3:10 참조)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 한 분만 아시느니라.”(요셉 스미스서 1:40)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구세주에 관한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여러분께 간증드립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곧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죄의 짐을 짊어지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압니다. 저는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가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 기꺼이 이룩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님이 1979년 12월 21일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에서 하신 말씀)

가정 복음 교시를 위한 제언

1. 세계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일입니다.
2.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부친으로 두셨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갖지 못한 권능을 갖고 계셨습니다.

3.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실 수 있으셨습니다.
4.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부활의 권능을 갖고 계셨습니다.
5.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대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수잔 이스턴 블랙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참된 제자가 지녀야 할 덕성을
말과 행동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 서에는 마리아의 생애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기록에 남은 것을 보면 마리아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따랐으며, 둘째,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기쁨을 표시했으며, 셋째, 하나님의 증거를 받고, 넷째, 하나님을 영광되게 한 후손을 낳았습니다. 마리아의 생애에서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의로움의 본보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충실히 따름

많은 예언자들은 구원의 계획에서 마리아의 역할이 지극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고대의 경전에는 마리아의 사명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 7:14, 니파이일서 11:13-20, 모사이야서 3:8, 엘마서 7:10 참조)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자신이 이 고대의 예언들을 성취하게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천사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경축할지어다 주께 큰 은혜를 받은 동정녀여 주께서 그대와 함께 하시니 그대는 여인들 중에서 선택되어 축복받고 있음이라.”(요셉 스미스역 누가복음 1:18)

천사가 말을 마치자 마리아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누가복음 1:34)라고 질문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싫다고 하거나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정혼한 처녀였으므로 어찌 이런 일이 생길지 참으로 궁금했던 것입니다. 천사가 방문하기 이전에 마리아는 목수인 요셉과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정혼을 했다고 해서 그녀가 요셉과 부부 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 풍속에 의하면 이는 다만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 의식에 참가했다는 것뿐입니다. (정혼이란 “약혼” 또는 “신부를 신성하게 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것은 약혼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질문에 천사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누가복음 1:35)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이 천사에게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그의 부모님이 지닌 특징, 즉 영광스런 하나님과 축복받은 합당한 여인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특징을 타고날 예정이었습니다.

천사의 메시지를 받고 난 후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누가복음 1:38)라고 대답했습니다. 마리아는 어머니가 되기 위한 기회를 겸손히 받아들여 참된 제자로서 갖추어야 할 순종심을 보여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기쁨을 표현함

천사가 떠난 후 마리아는 사촌인 엘리사벳을 찾아 나사렛을 떠났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이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자 의심없이 믿고 함께 기뻐했습니다. 요한을 낳게 되어 있는 이 여인이 인류의 구세주를 잉태한 마리아를 반겨 맞자, 그녀에게 성령이 충만하여 아기가 태중에서 뛰었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증거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기쁨을 엘리사벳에게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어리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누가복음 1:48~49)

그러고 나서 마리아는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은 또한
유대의 역사를 통해서 큰 일들을 해오셨다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마음에 두고 계셨던 것을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한다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쁨을
표현하였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으며,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더불어 어머니가 된다는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26~55 참조)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하나님의 권고와 그분의 증거를 받음

천사의 축하를 받은 이후, 기록에 의하면 마리아가 받은
첫번째 증거는 엘리사벳에게서 받은 것이었으며,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증거를 받은 사람은 마리아와
정혼한 남편 요셉이었습니다. 이 증거와 함께 잇달아
주어진 권고의 말씀은 마리아의 잉태에 대해 요셉이
갈등을 겪었기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요셉이 이 문제를
생각하고 있을 때 꿈에 한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마리아가 의롭다는 것을 증거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마태복음 1:20~21)

요셉은 마리아가 앞서 행한 것처럼 천사의 권고를
경청하고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마태복음 1:24)습니다. 요셉은 충실히 순종하는
미덕을 통하여 자신의 거룩한 성품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성실성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으매 이름을 예수”(마태복음 1:25)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보내신 세번째로 기록된 증거는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나사렛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한 지 얼마 안되어 가이사 아구스도는

“천하로 다 호적하라”(누가복음 2:1)는 영을 내렸습니다.
유대인들은 모두 그들의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해야 했기
때문에 다윗의 가문인 요셉과 마리아도 예루살렘 서남쪽
약 10킬로미터 지점에 있는 양치며 농사짓는 조그마한
마을인 베들레헴으로 떠났습니다.

우리는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지 얼마
후에 아기를 낳았는지는 모르지만, 경전을 보면 “거기
있을 그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어 구유에 뉘었으니”(누가복음
2:6~7)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목자들이 와서 방금 탄생한 아기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 이 목자들은 기독교의 첫
선교사가 되어서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증언 하였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마리아는 자신의 선택된 아들에 대한
네번째 증거와 권고를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받았습니다.
여성의 정결에 관한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여자들은 산후
40일 동안 칩거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레위기 12장
참조) 마리아와 요셉도 40일이 지나서야 예수를 성전으로
데려왔습니다.

성전에는 시므온과 안나라는 두 증인이 있었는데
시므온은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누가복음 2:26)는 계시를 받은 바
있었습니다. 시므온은 예수를 보자 이 어린 아기를 팔에
안고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누가복음
2:29~30)라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시므온은 예수님의 가족을 축복하고 특히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의 거룩한 부름에 대해 언급하면서 마리아에게
그녀와 그녀의 아이가 겪어야 할 세상의 고난에 대해
“실로 창이 저를 찌르매 네 영혼도 상처를 입으리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시므온의 간증은 여선지자 안나에 의해 재확인
되었습니다. 안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누가복음 2:39)였습니다.

마리아는 또한 동방 박사들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와 별이 비추어 주는
마굿간에 도착하여 “아기가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옆드려 아기께 경배”(마태복음 2:11) 하였습니다. 이들이 방문함으로써 마리아는 또 한번 아기 예수의 성스러운 부름에 대한 증거를 얻었습니다.

이와 같이 볼 때 우리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증거와 그분의 종들의 권고를 기쁘게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에 소개된 각 하나님의 종들은 모두 신뢰할 만한 분들이었으므로 마리아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였으며, 이들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그에 합당하게 충실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리아는 그들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누가복음 2:19)했습니다.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후손을 가짐

신약 성서에는 마리아의 아들이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의 어머니를 존경했다는 내용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예로 유월절 축제가 끝난 뒤 예수가 없어져서 찾아보니 그가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누가복음 2:48) 마리아는 예수를 꾸짖지 아니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아들이 그녀를 욕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존경을 표하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린 또 하나의 예는 나사렛의 이웃 마을 가나에서 있는 한 결혼식 연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연회장에서 예수님은 어머니의 분부를 받은 후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보이셨습니다.(요한복음 2:1~11 참조) 이 기적의 한 가지 효과는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요한복음 2:11)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사명인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일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깊은 사랑과 존경의 표시를 못하지는 않았습다. 경전에는 예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받으시는 중에도 어머니의 안녕에 대해 걱정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이”(요한복음 19:25) 서 있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가 그의 제자 요한의 옆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 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요한복음 19:26~27)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삶을 사셨으며 그분의 성역과 속죄와 죽음 및 부활에 관한 고대의 예언들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닮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가치가 있는 삶을 사셨으며, 어머니이신 마리아도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의롭게 수행한 일로 인해 칭송을 받기에 합당하게 생활하셨습니다. *

수잔 이스턴 블랙은 브리감 영 대학교의 교회사 및 교리학 부교수로서 브리감 영 대학교 제11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약속

구세주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
말씀과 노래

자료 사용을 위한 유의 사항 :

이 자료를 소리내어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읽어도 되고 가족이나 친구들을 모아 가정의 밤에서 읽어 주어도 됩니다.

한 사람이 읽어도 되고 몇 사람이 나누어 읽어도 됩니다.

여러분이 즐겨 부르는 찬송가 중에서 이 자료의 취지에 적합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같이 불러도 되며 찬송가 레코드나 테이프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래리 에이 힐러

아담이 에덴의 공기를 마시기 이전부터 구원과 구속에 대한 약속은 이미 주어졌 있었습니다. 구세주 또는 구속주로 약속된 분은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 자녀의 한 사람이나 그분은 훨씬 위대하셨습니다. 그분은 장자이셨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아버지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리하여 영광이 영원토록 당신의 것이 되옵소서”(모세서 4:2) “내가 여기 있어오니 나를 보내소서”(아브라함서 3:27)라고

말씀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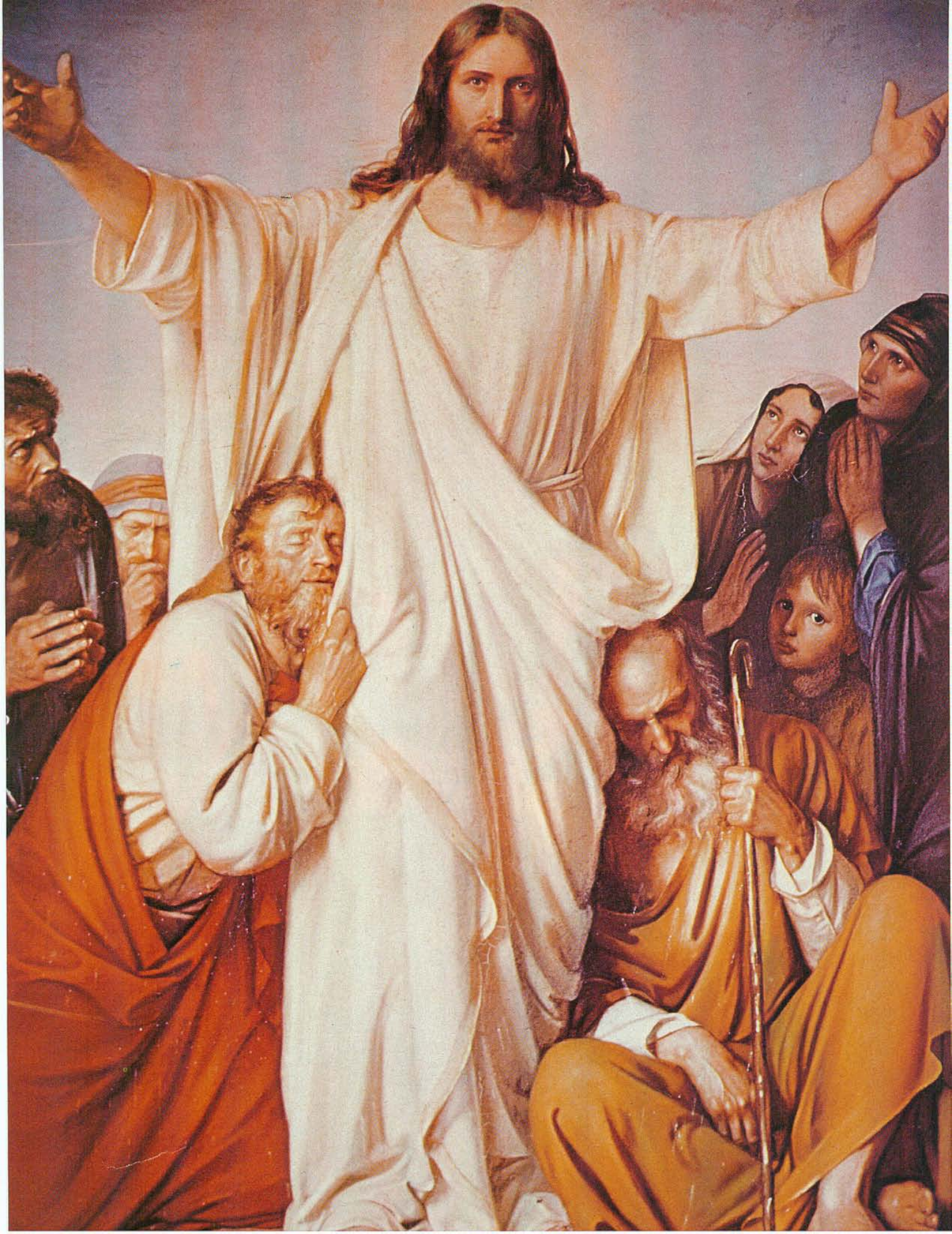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약속에 마음을 놓고 차례 차례 육신을 입고 망각의 장막을 거쳐서 만일 약속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암흑만이 지배하였을 세상으로, 또한 그 약속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알려지지 않는다면 희망이 없을 세상으로 내려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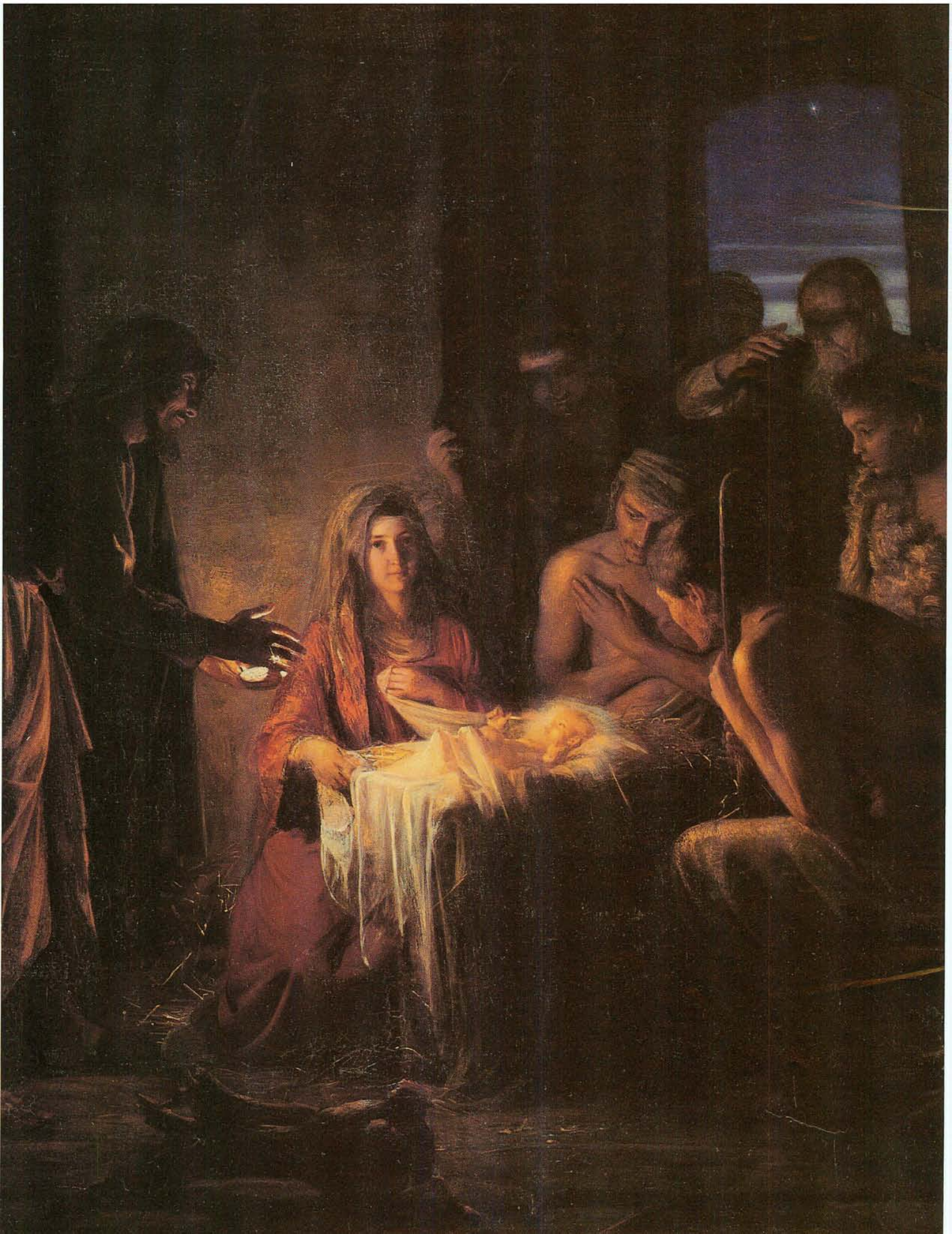
마치 하늘에서 내려오는 섬광처럼 계시가 내려와 마치 불꽃처럼 햇불에서 햇불로 이어져 아담으로부터 에녹에 이르기까지 이 약속은 의로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타올랐습니다. 이 불꽃이 가물거리다 꺼지게 되면 인간의 마음은 차가워져 희망과 약속을 잃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불꽃은 하늘로부터 다시 점화되어 예언자들과 그들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훗훗 타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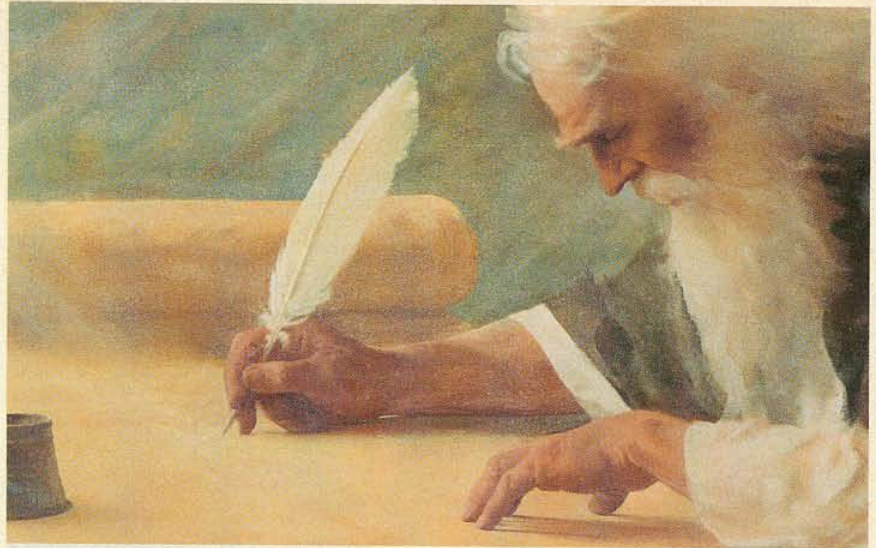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이사야 등, 빛의 근원이신 예수께서 장차 영적인 암흑 시대에 오시게 됨을 시현으로 본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암흑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평강의 왕이라”



위,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해 상세히 예언하는 선지자 이사야, 해리 앤드슨 작; 왼쪽, 예수의 탄생, 칼 하인리히 볼로흐 작(프리트릭스보그 미술관의 허가를 받아 사용함)

자에게 빛이 비취도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자라”(이사야 9:2, 6)

지구의 반대편에서도 이같은
시현을 보고 예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더, 리하이, 니파이,
엘마 등은 다음과 같이
예언했습니다. “이는 천국이
가까왔음ियो 하나님의 아들이 땅
위에 오심이라

“보라 그는… 예루살렘에서…
마리아에게서 나시리라.” (엘마서
7:9~10)

예언으로 사기가 오른 믿음이 강한
성도들은 약속의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랜 세월 동안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면서 생활하였습니다.

마치 시간이 정지된 것처럼
느껴지던 그때 정막을 깨고 주님께서
그 약속을 믿고 희망을 잃지 않은 한
사람에게 “머리를 들고 기뻐하라
보라 때가 가까왔음이라 오늘 밤으로
표적이 보일 것이요, 내일은 내가 이
세상에 내려”을 것(니파이삼서
1:13)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찬송: “고요한 밤”(찬송가, 134장)

이처럼 약속된 시간이 되자
하나님께서서는 충실한 예언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세상
사람들은 곧 일어날 일을 모른 채로
어리석게도 그들의 시선을 로마에게
즉, 이제는 먼지가 되어 버린
스스로를 신이라고 생각하던
통치자에게 집중시킨 채로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적인 일에
몰두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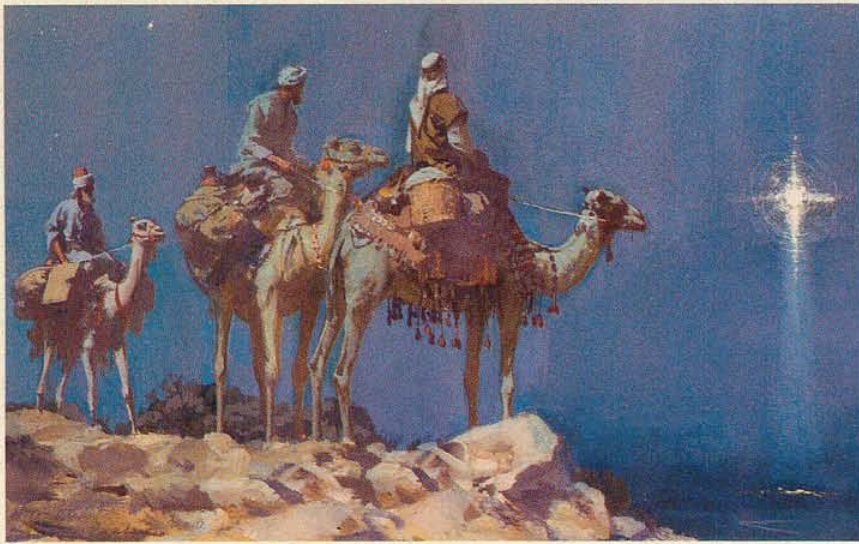
“이때에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누가복음 2:1)

세상의 많은 눈들이 로마로 향해
있을 때 하늘 나라의 시선은 예언자
미가가 예언하였으며 니파이가
시현에서 본 도시로 향해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포함해서
수 많은 영혼들이 조용한 기대
속에 희망과 경의감을 갖고 이
검허한 마음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찬송: “오 베들레헬 작은
골”(찬송가, 136장)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다윗의 집 족속인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헬이라 하는 다윗의



위, 하늘의 광경, 해리 앤더슨 작 ©리뷰 앤 에밀드 출판 협회: 왼쪽, 재림, 해리 앤더슨 작

“머리를 들고 기뻐하라... 내일은 내가 이 세상에 내려와...”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임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만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누가복음 2:3~7)

찬송: “그 어린신 예수”(찬송가,
131장)

이 기쁜 소식이 처음으로 전해진
사람은 막강한 권력을 소유한 로마의
아구스도 황제나 힘있는 헤롯왕이
아니라 목자들입니다. 선한 목자의
탄생 소식은 순수하고 겸손한
목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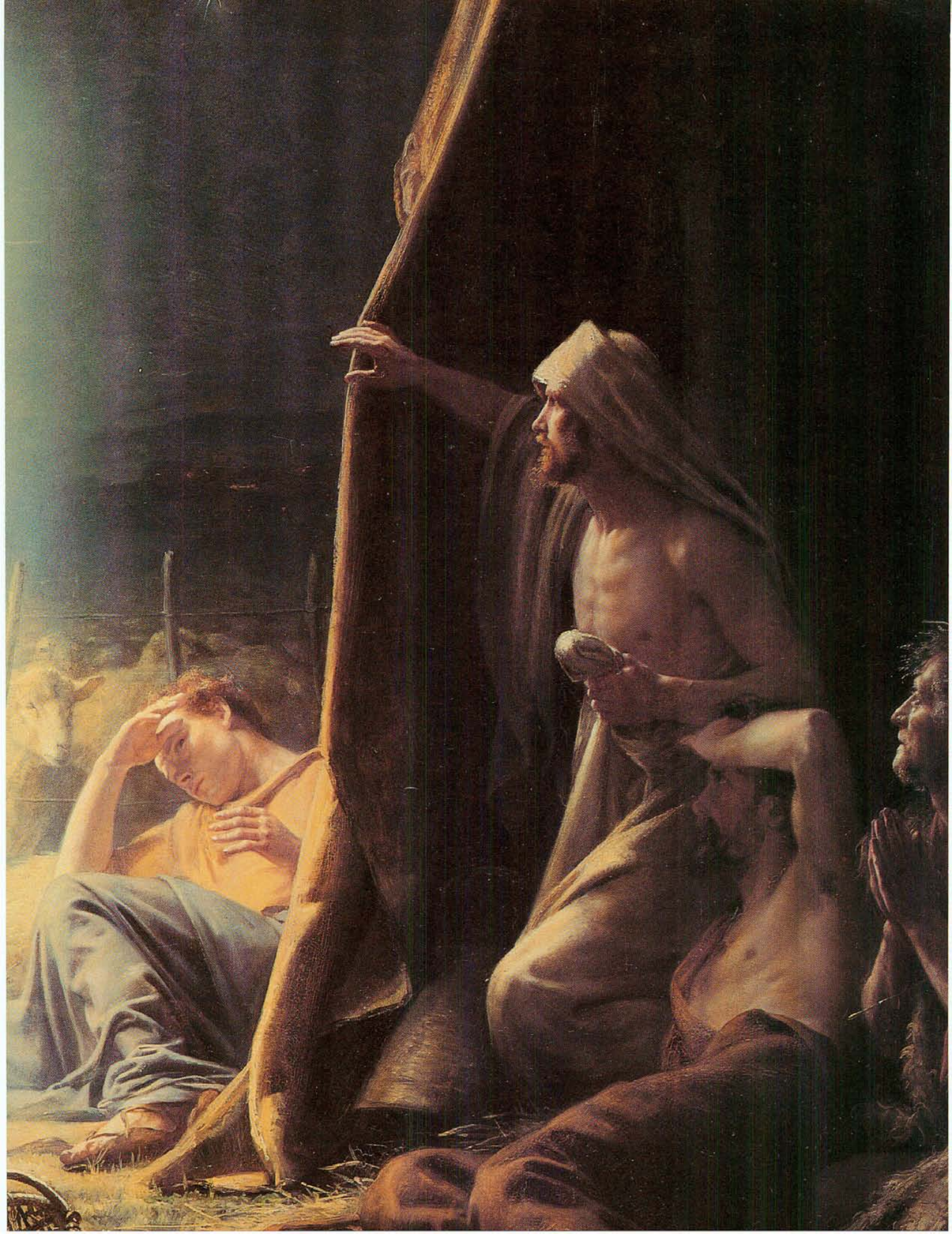
“홀연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누가복음
2:8~14)

찬송: “천사들의 노래가”(찬송가,
125장) 또는 “목자가 밤에 양
지킬때”(찬송가, 129장) 또는 “그
맑고 환한 밤중에”(찬송가, 135장)

비록 천사들의 음성이라 할지라도
세상 만물의 기쁨을 액면 그대로
표현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이나 저는 노래하는
천사들 틈에 끼어 있었는지도 모르며
전례없이 경탄스런 이런 일들을 직접
봤을지도 모릅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마음이 베일에 가려있어
우리가 지구에 오기 전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점화된 약속이 우리들
속에서 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목청을 높여 노래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기도 하며 또한 마음속에서
넘쳐흐르는 기쁨을 노래나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찬송: “기쁘다 구주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주님은 한때 어린 아기로 지상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위, 동방에서 온 동방 박사, 해리 앤더슨 작; 오른쪽, 목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림, 칼 하인리히 볼로초 작(프리드리히스부그 미술관의 허가를 받아 사용함)

오셨네”(찬송가, 130장)

이 약속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는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은 아직도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그랬듯이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고 영적인 어둠 속에서 세상적인 지도자와 강대국에 의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와 마찬가지로 마음이 순결한 사람만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눈을 하늘로 향해 희망이 가득찬 마음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주님의 자녀들을 청결히 하고 축복하며 돌보실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처음으로 오셨을 때 보았던 일들을 잊어버린 여러분이나 저는 그분을 다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공중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서 광채와 영광에 싸여 내려오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것이며 모두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구원과 구속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희망을 가지고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찬송 : “구유에서 나신 예수”(찬송가, 121장) 또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어린이 찬송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천사 노래 할까
하얀 눈송이 날릴까
아니면 봄일까
유난히 못별 가운데
한 별이 빛날까
어두운 밤 없어질까
새들 노래할까
주님은 우리를
그의 무릎가로 부르시리라는 것을
우리 확실히 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 주 옆에 앉아
사랑의 주님 얼굴을
뵈을 수 있을까
매일 주님 뜻 행하고
내 빛 받으면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도록 힘쓰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 날 부르시며
사랑스런 내 아가야
이리 오라 하겠네 *

성탄절에 있었던 일

렉스 디 피네가 장로
칠십인 정원희

크

리스마스를 며칠 앞둔 때였습니다. 저의 쌍둥이 동생과 저는 이미 성탄절에 관계된 한 가지 “사실”, 즉 산타클로스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만한 나이였습니다. 무슨 선물이건 그것은 우리 부모님의 적은 수입에서 지출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넉넉치 못한 살림 때문에 한번도 산타클로스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맥스와 저는 성탄절 선물에 대한 어머니의 걱정을 덜어 드리기로 결심하고 어머니에게 우리는 산타클로스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다만 “그래, 그게 정말일까?”라고 대답하실 뿐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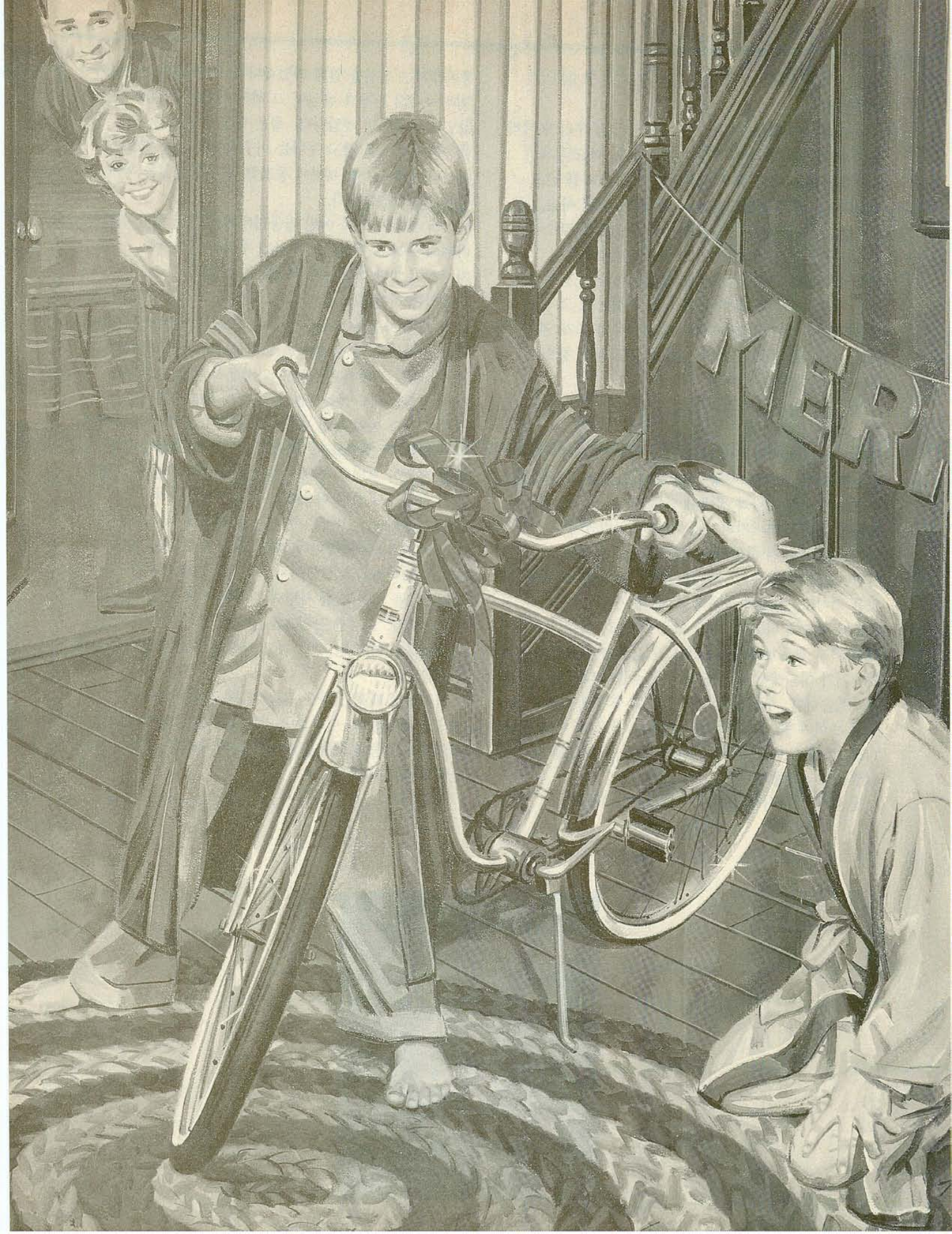
성탄 전야가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고 사탕과 팝콘을 만들었으며 손수 만든 선물들을 나무 밑에 놓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들을 침실로 보내시면서 아침에 부를 때까지 방에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미도 나고 호기심도 생겨 우리는 웃거나 킬킬대며 형인 린을 따라 침실로 갔습니다. 우리들의 노력과 아버지의 당부의 말씀이 더 겹쳐서 우리는 마침내 조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곧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오래 잔 것 같지 않았는데 맥스가 저를 깨우면서 아침 일곱시 십오분이라고 하였습니다. 거실로 달려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법석을 떠는 바람에 아버지가 깨셨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부엌 문을 열려고 달려가는 것을 보시고는 좀 화난 목소리로 새벽 두시 사십오분이라고 말씀하시며(실은 우리가 시계를 거꾸로 봤던 것입니다) 방으로 돌아가서 분부대로 아침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침실로 돌아가면서 선물을 보았습니다. 희미한 불빛에서도 선물이 멋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 앉아서 생각지도 못했던 이 놀라운 선물에 대해 한마디씩 했습니다. 그 선물은 히아와사 스트리머 자전거였습니다. 자전거가 한 대뿐이라거나, 밖에 눈이 쌓여 있어 자전거를 탈 곳이 없다거나 저 자전거가 우리들 중 누구의 것이 될 것인가 등에 관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똑딱거리는 시계 소리를 세면서 아버지가 부르실 때만을 기다리며 우리는 아마도 몇 시간 동안 그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아버지가 침실에서 걸어 나오시는 묵직한 발자국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오라고 하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산타로부터 쌍둥이에게” 주는 이 선물은 우리가 아직 본 적이 없는 가장 멋진 자전거였습니다. 이 크림색 자전거는 밝은 적색 줄무늬를 띄고 크롬 범퍼를 달고 있었으며, 그 외에 헤드라이트, 공구함, 바퀴 사슬, 보호판, 반사경과 용수철 안장 등이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전거가 우리 것이라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곧 저는 형제들과 같이 길에 쌓인 눈을 치우고 삽으로 길에 쌓인 눈을 치웠는데 그 일이 그렇게 쉬운 적은 없었습니다. 매끄럽게 생긴 새 자전거를 타보았습니다. 우리는 손발이 시린 것도 잊고 참으로 신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흥분속에서 우리의 멋진 성탄 선물에 완전히 몰두해버려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다른 가족들의 선물이 있다는 사실마저 잊고 있었습니다. 성탄 양말 속에는 오렌지 열매, 딱딱한 사탕 등이 들어 있었고 그 밖에도 손으로 포장한 사탕과 집에서 만든 설탕 과자 등 참으로 풍부한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어서 맥스와 저는 어떻게 저 자전거를 쓸까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신문을 배달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름에 일하러 갈 때 쓸 수도 있으며, 겨울에 학교에 타고 갈 수도 있을 것이고, 아무튼 굉장히 여러 가지 경우에 쓰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자전거가 어디에서 났을까 하는 궁금증이 다시 일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자전거를 살 형편이 못되고 또 전쟁 중이라 물자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던 터라, 도대체 누가 이렇게 훌륭한 선물을 마련할 수 있었을까 궁금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야 우리는 아름답고도 가슴이

몽클해지는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와 형과 누나의 희생과 관심이 그 해의 성탄절을 잊을 수 없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형은 학교가 끝난 후 낙농장에서 일을 했고 누나는 이웃집에서 일을 했으며 어머니는 추수기에 새벽에 통조림 공장에서 일을 하여 돈을 저축하셨습니다.

그들 모두가 우리 어린 쌍둥이에게 특별한 성탄 선물을 마련해 주려고 자신들의 시간과 수입과 심지어는 자신들의 성탄 선물까지 희생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형, 그리고 누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 몰래 베푼 사랑과 희생을 알고는 그 해 성탄절에 선물을 받았을 때보다 더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형과 누나가 부모님들을 도와서 자신들도 가져보지 못한 자전거를 사서 동생들에게 선물하는 일을 몰래 하고 이런 일에 칭찬이나 그 어떤 보상 따위는 바라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저는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정신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형들이 보여준 부모와 형제들에 대한 사랑을 더없이 값진 선물로서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자전거는 극성맞은 두 아이들 때문에 이미 오랜 옛날에 망가져버렸습니다. 쉬지 않고 타고 다닌 탓에 결국은 낡아버리고 말았지만, 그동안 우리 가족간에는 그리스도를 닮은 참된 사랑의 불길이 더욱 활활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 가족은 어떤 경우에도 여러 번 서로 돕고 지원해 주는 결속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배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는 참으로 귀중하며, 이러한 진리는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끊임없는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며 우리를 영원한 가족 관계로 묶어 줍니다. *



요셉 스미스가 우리 집에 오셨을 때

로레인 리차드슨

12 월 23일인 예언자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가정의 밤 공과를 준비하던 남편이 “요셉 스미스 이야기를 역할극으로 꾸며 볼까?”하고 제의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자녀들이 그 전 주에 한 역할극에서 경배드리던 모습을 잇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의 세 “목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손에는 나무 막대기를 쥐고 있는 아기 예수(아이들이 좋아하는 인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으며 두살 짜리 아이는 손을 뻗쳐 아기 예수를 부드럽게 토닥거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역할극을하기로 했습니다.

그후 한 주 동안 우리는 자녀들과 함께 요셉 스미스의 첫 시현에 관한 이야기를 복습해 보고 각 자녀에게 역할을 맡겨 주었습니다.

가정의 밤 시간이 되자 우리는 처음으로 요셉 스미스(두살 난 매튜)와 스미스 가족(나머지 식구들)을 만나 봤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요셉과 그 가족으로 다른 방에 들어가 “설교”를 들었습니다. 남편과 나는 각기 다른 방에서 교대로 설교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둘 중 설교를 하지 않는 사람은 자녀들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자녀들은 설교자인 부모의 “설교”를 눈을 크게 뜨고 공손히 들었습니다.

설교가 끝난 후 모두 거실로 돌아 오자 남편은 “자, 요셉 스미스가 어떻게 느꼈으리라고 생각하니? 왜 설교자들마다 다르게 이야기할까? 누구의 말이 옳은 것일까 하고 궁금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질문했습니다. 자녀들은 요셉이 무엇이 옳은지 궁금하게 생각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촛불을 켜줍니다. “요셉”이 촛불 옆에서 야고보서 1장 5절을 읽을 때 우리는 마치 요셉 스미스와 함께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요셉”이 이 성경 구절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진 후 우리는 그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드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나님 아버지(다니엘, 네살)와 예수님(남편)이 그의 머리 위 공중(의자 위)에 나타나서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아버지와 함께 미리 연습해둔 다음 구절을 엄숙하게 암송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요셉 스미스 2서 17절)

그리고 나서 남편은 예수님이 어떻게 요셉에게 어느 교회에도 속하지 말라고 하셨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주님이 요셉 스미스를 택하시어 지상에 복음을 회복하셨으며 요셉은 그 일을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며칠 후 나는 이 경험이 우리 자녀들에게 미친 영향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웃 아이가 놀러 오니까 우리 아이는 “옛날에 요셉 스미스라는 예언자가 살았는데 너도 그분을 알고 있니?”라고 자신있게 물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정의 밤 때처럼 그 첫번째 시현이 우리 모두에게 생생한 적은 없었으며 또한 그 진리가 그때처럼 더욱 강력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경전의 또 다른 이야기를 선정하여 역할극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에게

지니 랭캐스터

12 월의 어느 이른 오후 남편은 막내 아들에게 침례를 주었다. 이 중요한 날에 관한 감정을 표현하는 듯한 아들의 밝은 표정을 보자 가슴이 뿌듯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와드에서 성탄절 행사를 마치고 특별한 성탄절 기분에 휩싸여 집으로 향했다. 참으로 좋은 하루였다.

그러나 집에 도착하니 현관 앞 전등 유리가 깨져 있는 것이 보였다. 이제까지의 기분은 간데 없이 사라지고 대신 당혹감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전구는 박살이 났고 화사한 성탄절 리본을 매달고 있던 전봇대는 부러진 채로 땅바닥에 누워 있었다. 대문 앞면에는 깨진 달걀 속이 푹푹 떨어지고 있었고 달걀의 노른 자위가 창문과 처마와 담등에 붙어 있었으며 정문의 목제 창틀은 얼룩으로 더럽혀져 있었다. 어떤 달걀 덩이들은 영하의 날씨에 이미 굳어 있었다. 이같은 가해 행위의 표적이 됐던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이번 것은 가장 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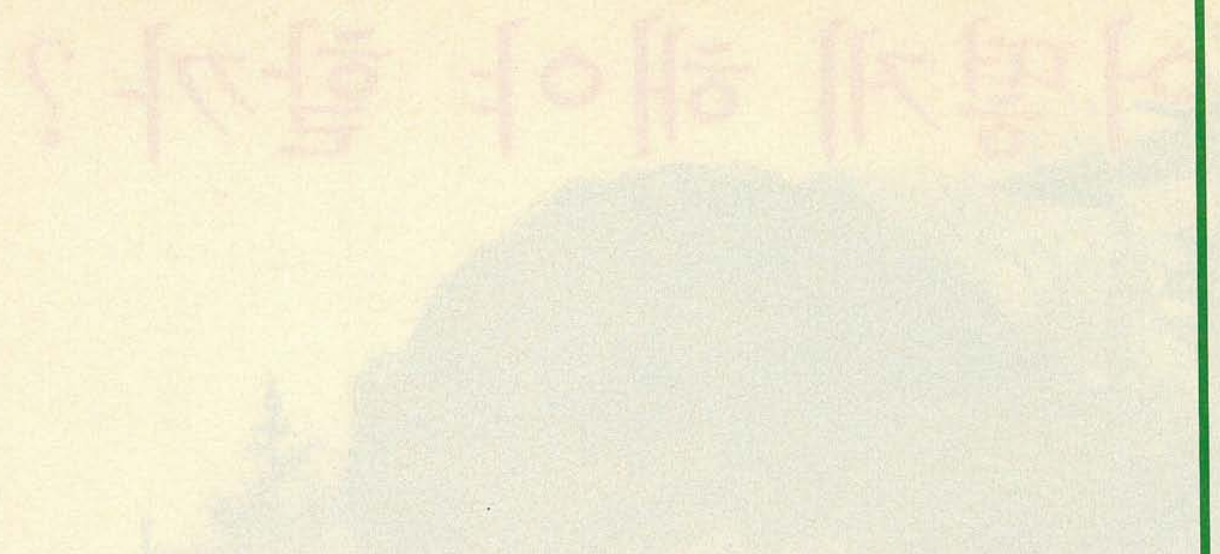
나와 남편은 “엄마, 누가 저런 짓을 하지? 그들은 우리를 좋아하지 않나 봐.”라고 묻는 아이들을 서둘러 집안으로 들어 보낸 뒤 아이들을 안심시켜 침대에 누이고 밖으로 나와 혹한의 밤 공기를 무릅쓰고 달걀 제거 작업을 시작했다. 만일에 아침까지 내버려 둔다면 이 달걀 덩이가 집에 칠한 페인트를 못쓰게 만들게 확실했기 때문이다. 한 시간 반 후에 우리는 매우 화난 채 집안으로 들어왔다.

그때 다음날인 일요일에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구세주와 그분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돼 있다는 것이 생각났다. 우리는 구세주와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방법에 대해 토의하기로 되어 있었다. 나는 화가 나서 마음속으로 분개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사랑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걱정했다. 그날 밤 우리는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잠자리에 들면서 그토록 좋은 하루가 처량하게 끝난 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못내 아쉬워 했다.

다음날 아침 어떤 사람이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를 알려주었다. 친구들은 경찰을 불러서 가해 사건에 가담한 두 남자 애들을 고발하라고 했지만 나와 남편은 이 일을 해결할 더욱 나은 방법을 모색하였다. 우리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 뿐만 아니라 그 두 소년을 위해서도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도와 달라고 기도했다. 그러자 곧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남편과 나는 화가 풀리고 마음이 평온해졌다. 나는 그날 초등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구세주에 대한 사랑과 우리 생활에 있어서 구세주의 인도하심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할 수 있었다.

그날 저녁 나와 남편은 과자를 두 접시에 잔뜩 담아 가지고 그 두 소년과 그들의 부모와 이야기를 하려고 집을 나섰다. 첫번째 가족은 이웃에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이었다. 과자를 소년에게 주면서 계란으로는 과자를 만드는 것이 더 좋겠다고 말하면서 “다음 번에 네가 계란을 쓰고 싶은 충동이 생기면 우리 집으로 가져 오너라. 우리가 함께 과자를 만들어 보자.”고 말했다.

섬뜩하게도 그 아이의 아버지는 우리의 화해 노력을 받아 들이려고 하지 않고 우리를 보고 과자를 갖고 돌아가 달라고 했다. 아무튼 우리는 과자를 그 집에 남겨놓고 나왔다. 차 쪽으로 걸어 가면서 나는 두번째 집으로 갈 용기를 잃기 시작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좀 떨리고 크게 실망한 상태였다. 처음에 나는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확신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확신이 없어졌다.

그러나 남편이 나를 격려해서 우리는 그 집을 향해 갔다. 다행히 그 집은 좀 나은 편이었다. 소년의 부모는 우리가 문제를 이해심 깊게 처리한다며 고마워 했다. 그러나 그 소년은 달걀 사건을 완강하게 부인했다.

우리는 우리가 한 일을 기뻐하면서도 결과에 대한

확신이 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한 시간 후에 두번째 집 아이가 그의 아버지와 함께 우리 집에 와서 그와 첫번째 집 아이가 가해 행위를 했다고 실토했다. 그들이 저지른 일을 보상하기 위해 그 다음 날 학교 수업을 마친 후 우리 집에 와서 달걀 찌꺼기를 닦아 내겠다고 말했다.

첫번째 집 아이는 끝까지 사과나 보상에 관한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한달 뒤 상호부조회 회장인 나는 우리 와드로 방금 보내온 새로운 회원의 명단을 받았는데, 그것은 다름아닌 바로 그 소년의 가족이었다. 나는 항상 새로운 자매가 우리 와드에 들어오면 곧 찾아보는 노력을 해왔으나 이번에는 서두를 수가 없었다. “나의 방문을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맞이하거나 할까?”하고 생각했다. 며칠을 지연시키다가 나는 그녀를 방문하기로 결심했다. 두려움과 흥분으로 무릎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마음 속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문을 두드렸다.

그 자매는 나를 맞아들였다. 우리는 과자를 갖고 온 날 밤 서로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실은요, 그날 밤 저는 자매님이 어느 교회에 속해 있는지 묻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어요. 자매님이 하신 일이 주님께서 우리가하기를 바라시는 바로 그것이었다고 생각했으니까요.”라고 그 자매가 말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얼마나 기뻐는지 모른다. 만일 우리가 경찰을 불러서 화난 가운데 일을 처리했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럴 경우 이 자매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특히 구세주가 탄생하신 이 절기에 영의 인도에 따라 행동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

지니 랭캐스터 자매는 콜로라도 그릴리 스테이크의 빅 탐슨 와드 회원이다.

결합하여 강하게 성장함

어느 자매는 미국 서부에 있는 세쿼이아 국립 공원을 방문했을 때 그곳에 있는 거대한 아메리카 삼나무들은 나무를 지탱해 주는 땅 속 깊이 뻗어 내린 주된 뿌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놀랐습니다. 그 자매는 윗부분이 무거운 나무들이 어떻게 세찬 바람에 쓰러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곳의 안내원은 그 나무들은 함께 바삭 붙어서 자란다고 대답했습니다. 뿌리가 얇게 박혀 있어서 한 그루만 따로 서 있다면 바람에 쓰러지겠지만 옆에 있는 다른 나무들의 뿌리와 한데 엉켜 있기 때문에 나무끼리 서로를 지탱시켜 주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열 명 남짓했던 이 지부 상호부조회 최초 회원들의 영향력은 다른 여성들에게 널리 퍼져 전해져 현재 이 아프리카 도시에는 서로 자매라고 부르며 복음의 진리를 함께 나누는 백 여명의 자매가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상호부조회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아주 다르게 보이는 자매와 유대감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서로를 지지함

우리는 개인적으로 서로 다른 만큼, 공통적인 필요 사항과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구세주로부터 우리가 공동으로 받을 수 있는 능력과 그분의 “생명수”를 끌어내야 합니다. (요한복음 4:5~14 참조)

우리는 함께 공부하면서 복음의 원리를 어떻게 생활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의견과 경험을 나눕니다. 이렇게 함께 나눔으로써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교화를 받아... 동등한 특권을 누리게 하려는 것”(교성 88:122)입니다.

우리는 동정심을 갖고 함께 행동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주 섬너에 사는 매리 영 자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저의 가정과 집, 혹은 자신이 매일 성취하는 일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저 서로를 위해 기뻐하고, 사랑할 수 있고 그래서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우리는 주변에 있는 다양한 여성들과 장점을 서로 나누면서 어떻게 발전할 수 있습니까?

아니하면 나의 것이 아니니라”(교성 38:27)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봉사하고자 하는 결의와 배우려는 욕망 및 사랑의 표현 등이 우리의 가슴을 채운다면 나이, 인종, 언어 또는 문화의 차이가 자매애를 이루는 데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아이보리 코스트의 아비잔에 사는 회원들은 따뜻한 악수와 포옹으로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이들은 세 종류의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기 모국어를 사용하는 여섯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가나 여자가 불어로 된 찬송가로 상호부조회 음악을 인도하고 독일에서 온 개종자가 공과를 가르치며, 하와이 태생의 일본 자매가 상호부조회 서기로 봉사하고 자이레에서 온 자매와 아이보리 코스트에서 온 자매가 가사 모임에서 젊은 어머니들에게 영양과 육아에 대하여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서 자매들은 목탄 화로 앞에 쪼그리고 앉거나 난로 앞에 서서 자기 나라와 마을의 고유 음식 조리법을 실제로 해 보입니다. 그들 모두가 서로 가르치고

상호부조회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줍니다. 자매들이 함께 모여 힘을 합하고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함으로써 인생의 역경과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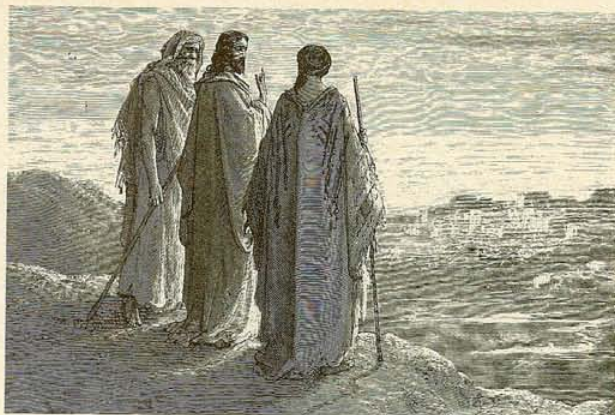
룻기는 나오미와 역경의 시기에 나오미를 부양하고 지지한 며느리 룻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룻기 4:13~15 참조) 이와 마찬가지로 현대 여성들도 서로 지지하며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공부하고, 노래부르고, 일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 안에서 여성들과 함께 연결되어 있고 와드와 지부에서 자매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또한 세계적인 자매애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호부조회에서 나누는 우정이 어떻게 여러분의 생활에 축복이 되고 있습니까?

자매들의 다양성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가 되시





장막의 가치

브르스 시 헤이픈

우리는 스스로 역량을
발전시킴으로써 자신과 하나님의 성품에
관해 배울 수 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세와 그분이 계시는 영원한 세계 사이에 장막을 치시기로 하셨을까? 이 질문은 그리 단순한 성격의 것은 아닌 듯하다. 장막으로 인해 우리는 전세의 일을 기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천사들 및 그들의 활동 또한 우리의 시야로부터 가리워져 있다.

부활후 구세주는 엠마오로 가는 도상에서 두 제자를 만났다. 구세주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은 그분을 몰라봤다. 구세주는 이들이 자신들이 “믿었던”(과거 시제임을 유의할 것) 나사렛 예수에 관해 그분께 이야기하면서도 그분의 지상에서의 성역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누가복음 24:25)라고 말씀하셨다.

“이에 모세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누가복음 24:27 참조)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고 필멸의 육신으로 계시는 동안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 사용하셨던 똑같은 성구를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나중에

백색 지팡이를 갖고 다니는 맹인은 지팡이로 “보는 데” 익숙해진다. 맹인이 지팡이가 자신에게 알려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충분히 설명해 주기란 불가능하다.

가서야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좀더 일찍 말씀해 주시지 않았는가? 그분은 자신이 부활한 사실을 좀더 분명하고 신속하게 밝히실 수도 있었다.

누가복음의 다른 구절에서, 우리는 거의 같은 시간에 죽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관한 비유를 읽을 수 있다. 장막 저편에서 깨닫게 된 것에 감동되어 부자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다시 보내어 지상에 남은 부자의 가족들에게 회개하도록 전도해 줄 것을 간구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렇게 응답했다. “저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찌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찌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누가복음 16 : 29~31)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는 세상의 생명이자 빛인 말씀에 관해 읽게 되는데, 이 빛이 “어두움에 비취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요한복음 1 : 5)했다.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으며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왜 주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좀더 분명히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는가? 주님은 아주 조용히 오셨다. 오늘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면, 왜 주님은 하늘을 날으는 백마가 끄는 불마차가 매일 대낮에 가로질러 우리 앞에 나타나도록 보내 주시지 않는가? 지상 바로 위에 멈춰 설 수 있고 곧 이어서 “자, 우리 창조주의 말씀이니라.”하는 소리가 하늘로부터 울려 퍼질 수도 있다.

왜 주님은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으시는가?

한편 탕자의 비유도 살펴보기로 한다. 한 젊은이가 그의 아버지에게 와서 재산 상속을 요구했다. 재산을 받고 난

뒤 그는 집을 떠나 먼 곳에 갔다가 가슴 아픈 경험을 함으로써 중요한 몇몇 교훈을 배우게 되었다. (누가복음 15 : 11~32 참조) 그 아버지는 아마 자신의 아들이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지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아들을 잃는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도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가 무슨 일을 겪게 될지 가르쳐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

우리의 아버지께서도 현세에서의 자유로운 경험에 관한 계획을 구상하시면서 전세에서 그와 같은 점을 생각하셨음이 분명하다. 언제나 그렇듯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하게 될 모험을 감행하셨겠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러한 위험을 피해갈 수 있는 어떤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해의 왕국에서 자신과 함께 살도록 하는 능력을 부여하실만한 권세가 없으셨을까?

히브리서에 나오는 구절을 보면 구세주께서도 몸소 힘들고 고통스런 경험을 통해 인생에 관한 여러 교훈을 배우셔야 했음이 분명하다. 구세주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히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히브리서 5 : 7~9)

그리고 그 다음으로 바울이 기록한 바, 우리에게는 완전히 소화해낼 수 있는 지식만 부여될 필요가 있다는 중요한 성구가 나온다. “너희가... 쪼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먹을 자가 되었다

“대저 쪼를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히브리서 5 : 12~14)

하나님은 왜 사람이 의롭게 되도록 강요하지 않으시는가? 왜 경험이란 것이 다시 돌아오지 못할 위험을 무릅쓸 가치가 있을 정도로 필수불가결한

구원은 하나의 목표이자
과정이며, 이 과정에는 성장,
발전 및 변화가 포함된다.
따라서 우리는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 단순히 정보를 수집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역량과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



쾨셀러의 동산에서의 고백, 구스타프 도어

것인가? 젖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가 왜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단단한 식물을 먹을 준비를 갖춰야 하는가?

구원은 하나의 목표이자 과정이며, 이 과정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구하는 일은 물론이고 우리의 성장, 발전 및 변화가 포함된다. 따라서 우리는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 단순히 정보를 수집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역량과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 사람들에게 의로움을 강요함으로써 그러한 과정에서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의로움이 간섭을 받거나 심지어는 금지되는 경우도 있다. 사람들은 의로운 생활을 통해 무언가를 이룩할 수가 있다.

신성한 기술을 습득함

지식에는 두 종류가 있다. 첫번째 지식으로는 정보를 수집하고 기억하는 일과 같은 합리적인 과정을 들 수 있으며, 다른 한 가지 유형의 지식을 나는 기술 개발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이는 다시 말하면 피아노 치기, 수영 하기, 혹은 자동차 엔진을 분해하는 법, 노래나 무용 또는 사고하는 방법 등을 배우는 것을 뜻한다. 그리스도와 같은 인격을 개발하는 과정은 단순히 어떤 사실이나 수치를 배우는 것보다는 기술과 거룩한 성품을 습득하는 일이다. 이러한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그와 같이 신성한 기술을 습득하기란 불가능하다. 피아노 지도 교사가 어떻게 실습을 할 의도가 없는 사람들에게 피아노를 연주하도록 가르칠 수가 있겠는가? 수없이 연습 경기를 치르는 동안 선수의 시행 착오를 감독하지 않는 코치가 어떻게 선수의 역량을 향상시켜줄 수 있겠는가?

대단히 혁신적인 접근 방법을 보유하고 있어 피아노를 배우는 학생들이 연습할 필요도 없는 음악 대학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 학교는 모든 기본 원리들을 단순히 이론적인 방법으로만 가르칠 것이다. 즉 손가락 움직이는

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음악 이론과 음악사에 깊이 접근하며, 음악을 이해하는 방법을 완벽하게 가르친다. 학생들은 피아노 연주법에 관해 쓰여진 것 중 가장 훌륭한 서적들을 모두 암기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은 4년간 지속된다. 학생들은 각자 중요한 피아노 협주곡의 악보를 암기하는 것과 같은 임무를 맡게 될 것이다. 그들은 눈을 감고도 피아노와 오케스트라용 악보가 뇌리를 스쳐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며, 여러분에게 그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후, “피아노를 연습하지 않고 과정을 이수”하는 학교의 첫 졸업생이 오케스트라와 더불어 정식 데뷔를 하기 위해 음악 회당의 공연 무대에 첫 발을 디딘다고 가정할 때, 여러분은 어떤 일이 발생하리라고 생각하는가?

아무런 행동도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

비록 “사고”라는 것이 어떤 형태의 학습에서도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는 하더라도 어떤 일들은 연습을 통해서만 습득될 수 있다.

선생님께 순종함

지식에 관한 중요한 서적에서 마이클 폴래니라는 학자는 기술 습득을 지식의 독창적인 분야로 규정하고 있다. 폴래니에 따르면 우리는 그 기술을 완전히 습득한 사람의 숙달된 동작을 모방함으로써만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고 한다. 비록 우리가 모방하는 선생이 자신의 기술에 관한 세부 사항들을 모두 밝힐 수 없더라도 우리는 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과 구세주를 개인적으로 알고 그분의 모범을 따르는 것은 복음에 따라 생활하는 궁극적인 방법, 즉 단순히 특정의 계명과 세세한 교리를 준수하는 것 이상의 길이 된다는 복음 개념 사이에는 유사성이 있다.

비록 폴래니는 종교에 관해 기술하고 있지는 않으나,



그의 생각은 종교적 지식에도 적용된다. “모범으로 배운다는 것은 권위에 순종함을 뜻한다. 여러분은 그 효과를 분석 및 상술할 수 없을 때도 선생님이 일을 하는 방법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선생님을 따르는 것이다. 선생님을 예의 주시하고 그의 모범을 통해 그 노력을 답습함으로써 제자는 무의식적으로 선생님 자신에게도 분명히 알려지지 않은 것들을 포함해 기술의 원칙들을 습득하게 된다. 이와 같이 감춰진 원칙들은 다른 사람을 무비판적으로 답습하려는 정도까지 자신을 양보하는 사람에 의해서만 습득이 가능하다. 개인적 지식의 보고를 보전하고자 하는 사회는 전통을 따라야 한다.”(개인적 지식, 뉴욕: 하퍼 앤 로우, 1964년, 53쪽)

회의론자의 오류

우리는 계명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복음의 진실성을 시험해보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을 보아왔다. 회의론자에게 복음을 시험하고 확인해 보라고 간청한다해도 회의론자는 자신의 자유를 잃어버릴 듯이 보이는 방법을 스스로 행하려 하기보다는 우리가 그것을 입증해 주길 원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의심하는 그의 태도로 인해 복음이 그에게 과실율(요한복음 15:4) 맺어주기란 진실로 불가능할 것이다. 왜냐하면 만일 복음 원리에 따라 생활하지 않는다면, 즉 복음 안에서 자기를 잃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자신이 요구하는 증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기술을 익히려는 사람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자신을 헌신하게 되기 전에는 그가 습득할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있다. 폴래니는 백색 지팡이를 갖고 다니는 맹인이 어떻게 “보는 일”에 익숙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맹인이 그 지팡이가 자신에게 알려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충분히 설명해주기란 불가능하다. 정상인이면서도 눈을 못본다는 것이 어떤 상태인가가 궁금해 그저 이따금씩 눈을 감아보는 사람들은 지팡이가

우리가 구원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주님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실 수 없다. 우리는 다만 보고 들음으로써 피아노를 치는 방법을 배우는 데 그치고 말 것이다.

세상에 대해 그들에게 무엇을 알려주는지를 배울만큼 충분한 동기 부여를 받지 못한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그들이 그것을 알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맹인이 아닌 사람에게에는 하등의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좀더 유추를 해보자면, 맹인은 거리에 나갔다가 자동차에 치는 위험을 무릅쓰기보다는 차라리 집에만 있겠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의 선생이 말해줄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만일 네 지팡이가 부여해 줄 수 있는 자유를 원한다면, 너는 그러한 모험을 시도해야 한다. 만일 네가 거리로 나가서 연습을 통해 배우지 않는다면 네게 지팡이를 사용하는 법을 어떻게 습득하는지 말해 줄 수 없다. 나는 네 곁에 서서 말해 주겠다. 내가 아는 모든 바를 알려주겠지만, 네가 그것에 전념하지 않는 한, 널 위해 내가 해 줄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

장님은 연습을 하는 과정에 어쩔 수 없이 뒤따르는 실수와 더불어 지팡이를 이용해 한 번에 한 걸음씩 움직이는 연습을 하는 고통은 해 볼 가치가 있는 일이며 이에 위험이 따른다는 점을 어떤 측면에서든 깨달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연습이란 단순한 반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는 어떤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 있어, 특정의 기술을 배우겠다는 일념하에 계속해서 정신적인 노력을 가함으로써 이뤄지는 변화 및 성장 과정을 뜻한다.

이와 같은 일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확신시켜 줄 수 있을 것인가? 회의론자들은 아마 이렇게 말할런지도 모른다. “해의 왕국이 왜 그처럼 중요한지 이해가 가도록 내게 설명해 주시오. 그렇게 되면 난 모든 계명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위험을 감당할 것이며, 내 자신과 선생님께 순종하고, 모든 연습과 일상의 활동들을 잘 감내할 수 있을 것이요. 그러나 그에 앞서 먼저 나는 결국 이러한 모든 일들이 해볼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당신이 입증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 것인가?





비록 우리가 현세에서 주어지는 학습 기회에 전적으로 동참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그리스도와 같은 온전한 성품을 개발시킬 수 없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해의 왕국에 합당한 역량을 궁극적으로 발전시키는 일은 하나의 거룩한 은사로 주어진다.

부활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인간의 마음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그것이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길은 없다. 왜 그런지 우리는 그 이유를 모른다. 그것은 실체와 우주의 본질 가운데 있다. 우리는 이를 신뢰하여 시도해 볼 뿐이다. 시도해 보는 자들에게는 변화가 생길 것이며, 그런 다음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누군가에게 이를 설명해보면 아마도 듣는 사람은 그들의 이야기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할 것이다.

현세에서 우리는 해의 왕국에서 그에 따라 살아야 할 기술과 역량 및 거룩한 성품을 발전시킬 기회를 부여받는다. 아홉살 난 내 아들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싶다고 한다면, 나는 아들에게 만일 고속도로로 차를 몰고 나간다면 위험하다고 설명해 주어야 한다. 아들은 자신은 물론이고 그밖의 많은 사람들을 차로 치어 죽일 가능성도 있다. 어린 아들에게 아직까지는 고속도로가 부여해 주는 자유를 누릴 역량이 없는 것이다.

그와 같은 역량, 즉 기술, 판단력, 성숙함 등을 발전시키기 전에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는 일은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가게 할 수 있다. 이와 똑같은 원리가 해의 왕국의 율법이 다스리는 왕국에서 생활하는 자유와 책임을 너무 조급히 받아들이려는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책임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따라 우리를 자유롭게도 하고 구속하게도 될 수 있다.

교리와 성약에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은 예지는 어떠한 것이든지 다 부활할 때에 우리와 함께 부활하리라.”(교리와 성약 130:18)라고 기록되어 있다. “예지”는 사실, 정보 혹은 계명과 교리에 관한 지식을 가리킬 수도 있는 반면에 그리스도와 같은 능력, 기술, 자제심, 순종, 사랑, 인내, 비이기심 및 기타의 덕성을 지칭하기도 한다.

만일 장막이 너무 일찍 거둬진다면 우리는 왜 “저주받거나” 발전이 중지될 수 있을까? 아마 그와 같은 해의 왕국의 자질을 발전시키기 위한 행진을 멈추게 되기

때문일 것이다. 심지어 불마차가 매일 하늘을 가로질러 난다고 할지라도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요한복음 17:3 참조) “영생”은 삶의 길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수준을 뜻한다. 영생이란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살기 위해 장기적이고 점진적으로 역량을 애써 발전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생활하기 시작할 때에야 비로소 그분을 알게 된다.

전세에서 사탄이 제시한 계획을 상기해보자. 사탄은 “내가 모든 인류를 구속하여 한 사람도 잃지 아니하리니, 반드시 내가 이를 행하리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영예를 내게 주소서.”(모세서 4:1)라고 말했다. 우리는 사탄의 계획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미 부여한 인간의 자유의지를 멸하려 하였”던(모세서 4:3)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자유의지의 필요성

왜 자유의지는 그토록 중요한가?

자유의지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경협해야 할 성장에 필수적인 기술과 성품을 개발할 수 없다. 간단히 말해 불가능하다. 말을 강가로 데려갈 수는 있으나 억지로 물을 마시게 하지는 못한다. 어린 아이에게 책을 줄 수는 있으나 그 아이가 스스로 그 책을 읽겠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결코 글을 배울 수 없다. 사탄의 계획은 성공할 수 없었다. 우리의 선택에 상관없이 한 사람도 잃지 않겠다고 그는 호언장담했지만 이는 대부분 그의 주장과 같이 거짓말이었다.

이러한 개념은 지적인 발전에는 자발적인 행동과 질문을 제거할 수 있는 자유가 필요한 이유 및 왜 그것들이 종교적인 성품의 발전에 긴요한지 그 이유를 몇 가지 암시해 준다.

구원은 기술 발전의 한 과정이라는 개념은 또한 우리가 왜 장막이 있는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우리는

만물이 현상 그대로를 유지해야 한다고 해서 조금해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 우리는 신앙과 회개 및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떤 과정이면서 행동 원리인지를 알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과 원리를 규정하고 동시에 경험함으로써 이것들을 이해하게 된다. 하나님은 위대한 교사이시며, 거룩한 성품을 개발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따라야 할 모형과 원리들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과정에 충분히 몰입해야 그분이 가지고 계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 주신다.

만일 우리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로 메달이나 상장을 받아야겠다고 주장한다든지 혹은 복음이 얼마나 그리고 왜 효과적인가를 모든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할 수 없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만한 역량을 발전시킬 때까지 우리의 제한된 지식에 그것을 설명하실 수 없다. 우리는 여전히 세세한 하등의 율법 조문까지도 완전히 숙지하려고 하는 영적인 청소년으로서 핵심 주변을 맴도는 사람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종교의 진수를 완벽히 측정할 수는 없다. 경험에 의하지 않고는 이를 완전히 이해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평가절하해서는 안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인 가족에 대한 사랑과 간증, 하나님께 대한 감사 등을 완전히 측정하거나 혹은 규정할 수는 없다. 어쨌든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생각을 완전하게 전달할 정도로 이렇듯 소중한 것들을 축소시킨다면 그 신성함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 아름다움이나 기쁨과 마찬가지로 그것들은 매우 중요하므로 그것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기란 불가능하다.

물론 경험을 통한 학습을 중요시한다고 해서, 인생의 교훈을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인간적인 실수를 모두 범해 보아야만 한다는 뜻은 아니다. 다른 사람들의 선택으로부터 귀결된 좋고 나쁜 결과에 대해 관찰하는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산 교훈을 배울 수가 있다. 오늘날 세계에는 “죄란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님”(엘마서 41 : 10)을 나타내는 증거가 주변에 얼마든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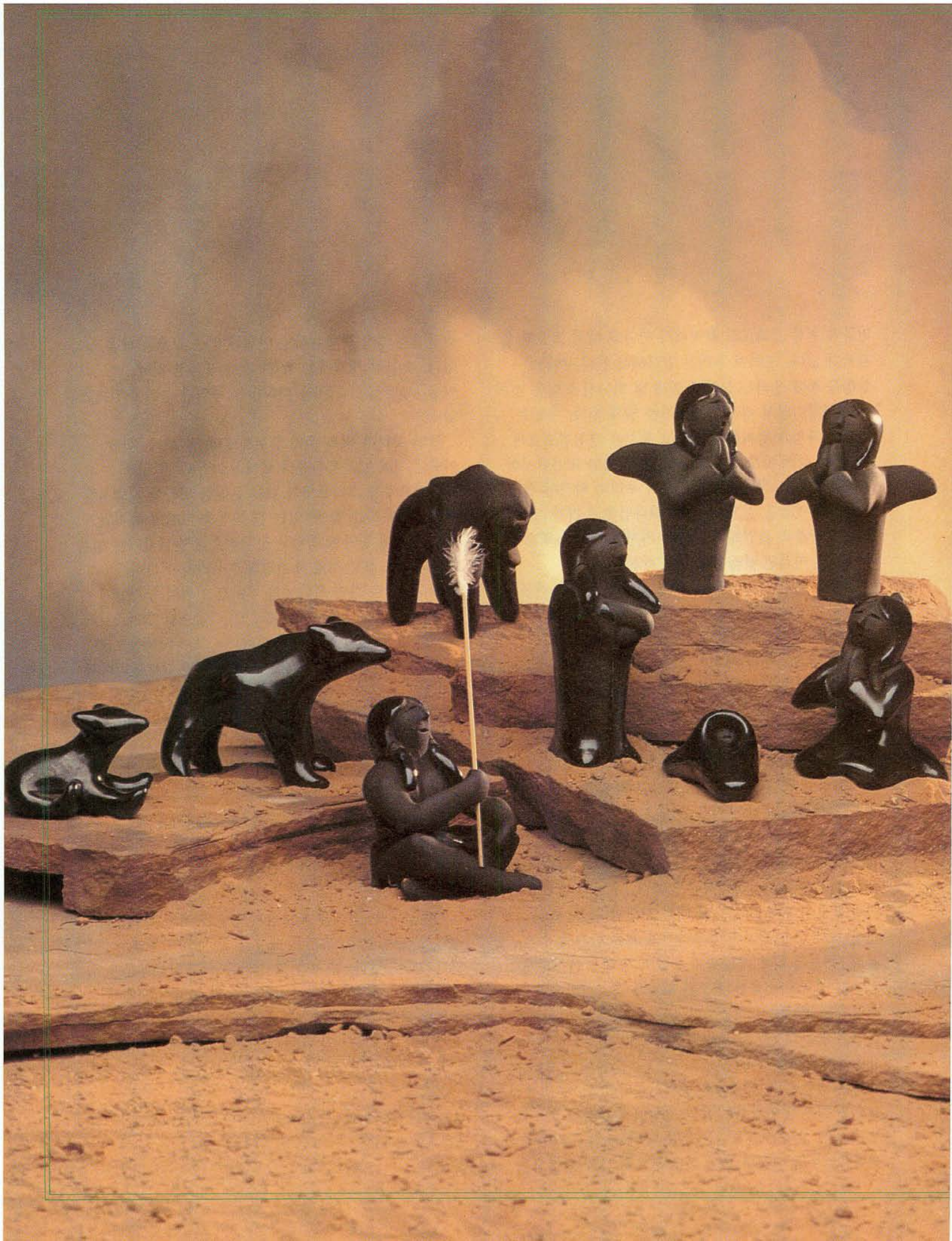
뿐만 아니라 비록 우리가 현세에서 주어지는 학습 기회에 전적으로 동참한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그리스도와 같은 온전한 성품을 개발시킬 수 없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해의 왕국에 합당한 역량을 궁극적으로 발전시키는 일은 하나의 거룩한 은사로 주어진다. “우리가 여하히 노력하더라도 다만 하나님의 자비로 인하여 구원받게 됨을 앎이라.”(니파이이서 25 : 23). “참으로 그리스도께로 나아와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되며, ... 그 자비하심으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리라.”(모로나이서 10 : 32)

구세주의 속죄는 우리의 죄는 물론이고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보상해 줄 수 있다.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이러한 보상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그러한 보상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명을 상기하게 되며, 우리가 이해력을 얻고 의미를 깨닫기 위해 노력하며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 애쓸 때, 우리 자신의 노력 외에 우리를 도와주는 근원이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는 현세와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사이에는 장막이 놓여 있다. 그것은 때때로 대단히 그 두께가 얇아지기도 한다. 하지만 그 장막은 우리들 대부분을 위해 남아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언젠가 그분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하는가를 체득하도록 도와주시기 위해 장막을 그곳에 설치해 두셨기 때문이다. *

브르스 시 헤이븐 형제는 현재 브리검 영 대학교 사무 총장으로 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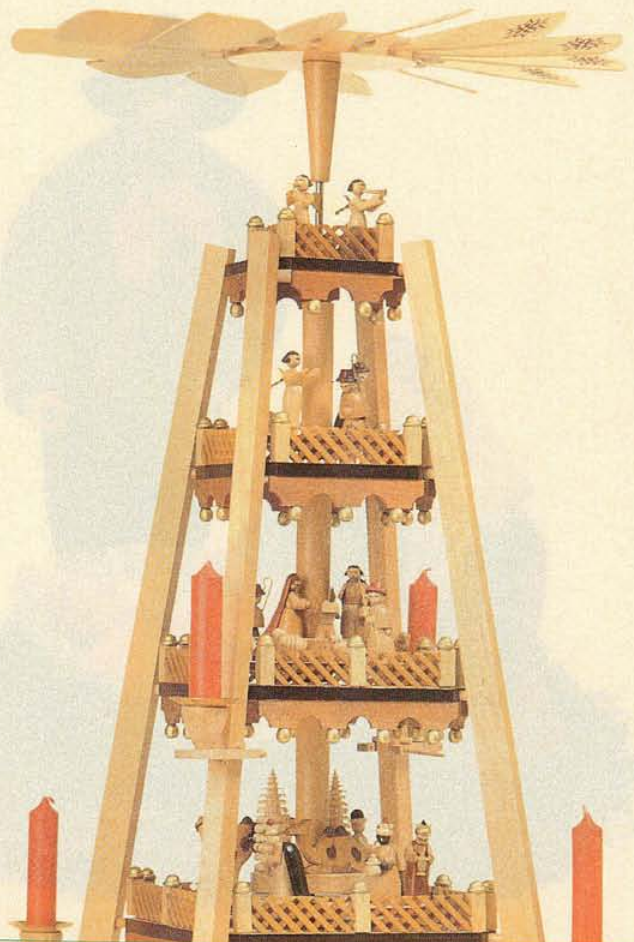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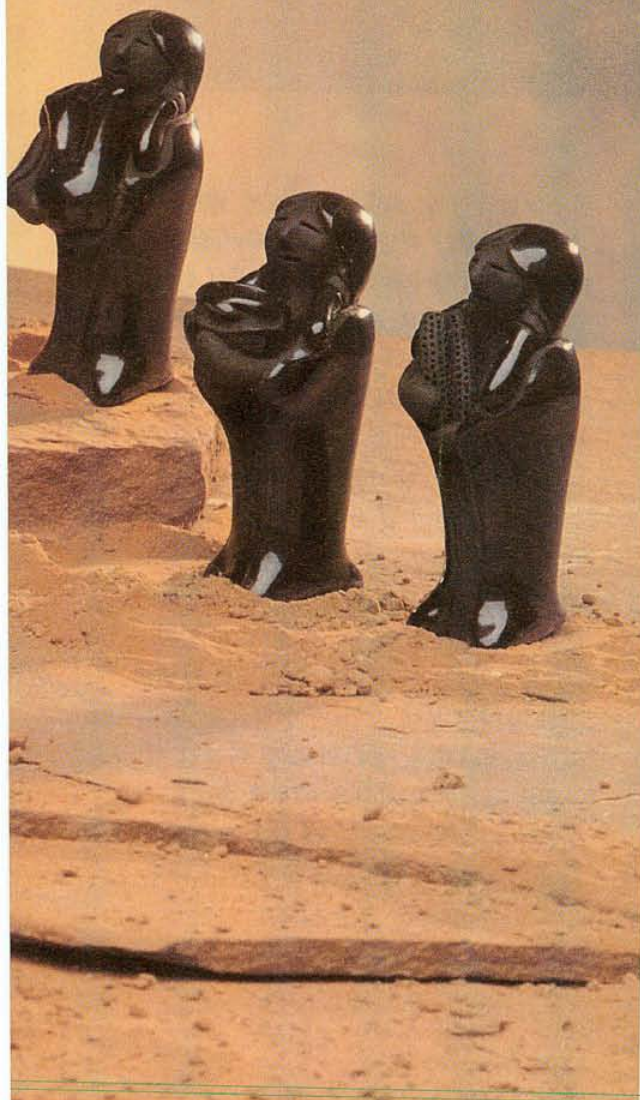


그리스도의 탄생 장면

세계 곳곳에서 전시되고 있는 아기 예수 탄생에 관한 장면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선포하고 그들 창조주의 문화와 전통을 경축하는 것이다.

왼쪽 : 미국 뉴멕시코주의 산타 클라라 푸에블로 인디언들은 진흙으로 도기를 빚은 다음 독특한 검정색을 내기 위해 이것을 굽는다. 세 명의 "인디언 동방 박사들"이 아기 그리스도에게 옥수수 선물을 드리는 모습을 엄마 곰과 아기 곰 그리고 물소가 지켜 보고 있다. 다리를 꼬고 머리에는 깃털을 달고 앉아 있는 인디언 추장은 성스런 탄생의 순간을 상징한다.

아래 : 독일의 그리스도 탄생에 관한 이 피라밋 촛불을 켜면 그 열기가 풍차를 돌려 단이 회전하게 된다. 각각 나무를 잘라 손으로 페인트 칠을 해 만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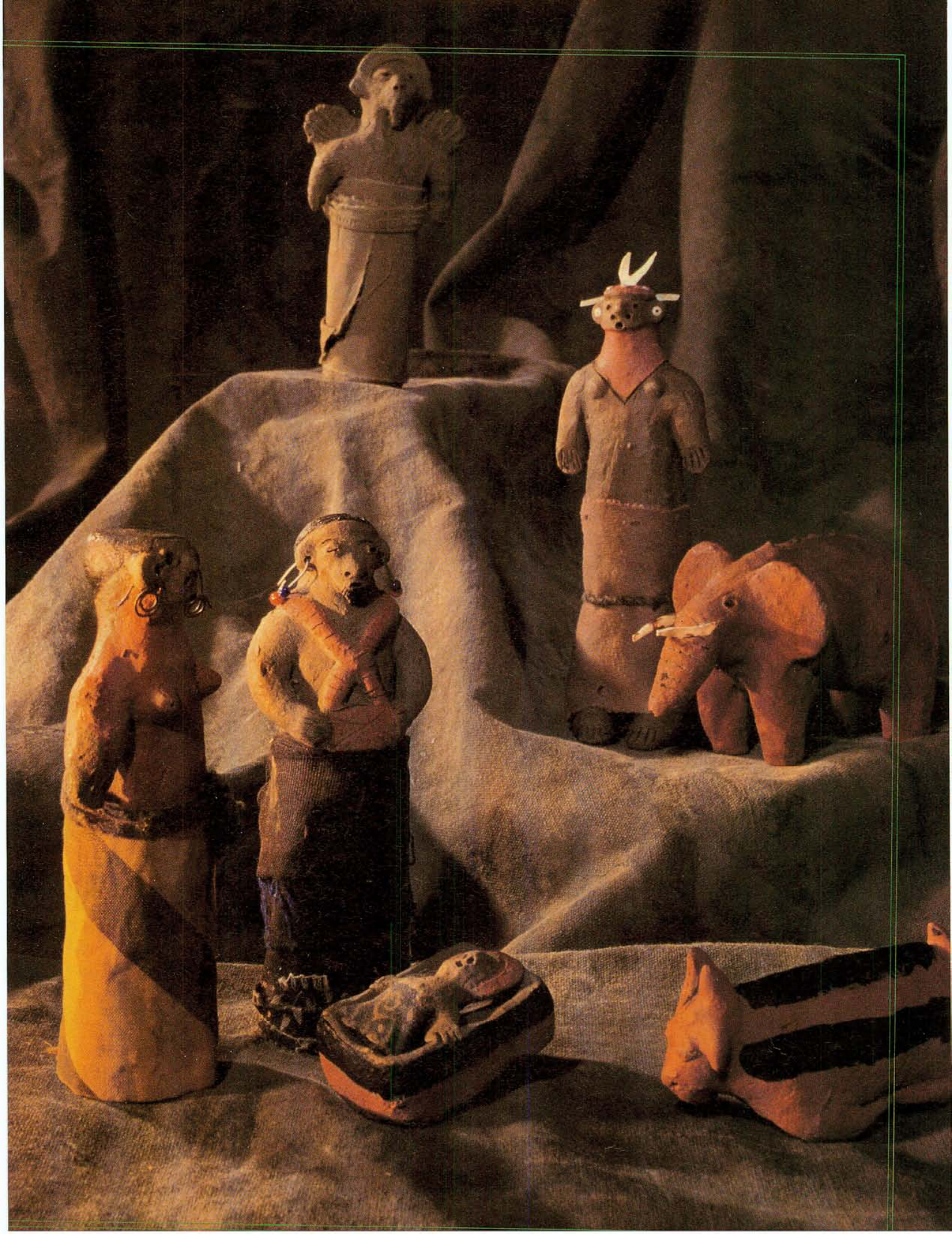




위 : 이탈리아의 그리스도 탄생에 관한 이 장면은 오페라 서막처럼 구성되어 있다. 폐허가 된 고대 로마의 형상을 따서 만든 무대와 입상들은 고무로 제작되었으며 실물처럼 보이도록 채색되었다. 천사의 깃발은 "영광!"이라고 우렁차게 선포하고 있다. 조상들은 그들 앞에 전개된 기적의 환희를 알리는 송가를 금방이라도 부를 준비가 된 듯 보인다.

왼쪽 : 이 독일의 그리스도 탄생 장면에서 마리아와 요셉은 바바리아 근처의 독일 마을인 밤베르크 전통 의상을 입고 있다. 다음 쪽 : 아프리카 케냐의 그리스도 탄생에 관한 장면은 불에 쪄인 천연 염료를 갖고 손으로 채색했다. 케냐의 전통 의상인 이 옷은 채색된 뜨개실을 이용해 손으로 직조한다. 동방 박사 중 한 명을 코끼리가 동행하고 있다. 얼룩말이 마굿간 근처에 무릎을 꿇고 있다.







맨위 : 과테말라의 진흙 조상에는 붓을 이용해 흰 염료를 들임으로써 신성한 느낌을 창조해 낸다.
 위 : 볼리비아의 그리스도 탄생 장면에 나오는 인물들은 목화 솜으로 속을 채운 천으로 만들었다. 이들은 볼리비아 전통 의상을 입고 있다. 양들과 함께 구유에 있는 라마.
 반대 쪽 : 멕시코 옥사카 출신 민속 화가인 후안 헤르난데스가 이 탄생 장면을 조각하고 채색했다. 전통 의상을 입고 있는 마리아와 요셉. 천사가 들고 있는 별은 옥사카만이 독창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와 같은 방법으로 별을 표현하는 민속 화가는 다른 지역에서는 없다. *

(분호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탄생 장면들은 나무 복음 회부 기념사의 제프리 오 존슨, 후아니타 새들러, 스티브 라이트 및 하릴라 라이트, 그리고 교회 역사 예술 박물관의 도움을 받아 게재되었다.)







이상적인 성탄절

엠 시 오브라이언트

그들은 열 여덟 자녀를 기르고 있었는데 그 중 열 넷은 입양하였거나 또는 임시로 맡아 기르는 아이들이다. 그렇지만 웨스트모어랜드 가족은 안젤라와 같은 아이를 본 적이 없었다.

안젤라는 네 살난 여자 아이인데 부드러운 갈색 모발과 서글퍼 보이는 듯한 눈빛에 경계를 취하는 듯한 조그만 얼굴을 갖고 있었다. 어느해 가을 입양 알선인에 의해 웨스트모어랜드 가족에게 입양된 이래 안젤라는 가족과 전혀 어울리려고 하지 않았으며, 다른 입양 아이들과도 어울리지 않았고, 웨스트모어랜드 형제와는 더욱 더 어울리려고 하지 않았다. 안젤라는 늘 혼자 있으려고 했으며, 두터운 종이 상자 가방 안에 있는 옷가지들을 풀려고 하질 않았다. 또한 집에 함께 기거하는 다른 네 아이들과도 함께 어울리지를 않았다.

웨스트모어랜드 형제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어린 자녀들을 행복하고 편안하게 해주려 했다. 그래서 안젤라에게 인형을 사주었지만 안젤라는 상자를 열어보려고 하지도 않은채 그대로 두었다. 뒷뜰에 그녀를 매어 주어도 안젤라는 그 위에 앉아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웨스트모어랜드 형제가 밤에 재미있는 이야기와 자장가를 들려 주면서 재우려고 해도 안젤라는

“아무 이야기도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런 자장가도 불러 주지 마세요.”라고 대답했다.

웨스트모어랜드 형제는 난감했다. 다른 자녀들에게는 그가 사용하는 사랑의 방식이 매우 효과적이었다. 하지만 몇 주 동안 좌절과 거부 반응을 겪은 후 그는 안젤라를 돕기 위한 자신과 가족의 능력에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계속 시도하고, 안젤라가 함께 하는 가운데 가정을 밤을 가졌지만 안젤라의 경계하는 태도는 여전했다.

안젤라의 입양을 알선해 준 사람의 말에 따르면, 안젤라는 자기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을 잃을까봐 두려워 그들에게 애착을 갖지 않으려 하는 불안정한 어린이의 전형적인 예가 된다고 하였다. 안젤라는 얼마 안되는 짧은 기간 동안 입양아로서 이 집 저 집 돌아다녀야 했다. 그래서 조만간 웨스트모어랜드 가정에서도 떠나게 될 것이며, 또 다시 가족 없이 지내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웨스트모어랜드 형제는 그와 같은 설명을 듣고 자기는 안젤라를 진실로 사랑하며 안젤라와 영원히 함께 살겠다는 사실을 안젤라에게 알려주기로 다시 한번 굳게 결심하고, 안젤라에게 어떻게 그러한 확신을 심어줄 것인지 알기 위해 간구드렸다.

성탄절을 몇 주 앞둔 어느날

웨스트모어랜드 형제는 주 의사당에서 집무를 보면서 몇몇 청소년들이 주지사와 함께 사진을 찍기 위해 포즈를 취하는 중에 주지사 옆에 서기 위해 서로 밀고 당기는 모습을 지켜 보았을 때 마침 카메라 플래시처럼 뇌리를 스쳐가는 것이 있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생각을 아내에게 얘기하자 아내도 그것이 아주 효과적일 것이라고 했다.

웨스트모어랜드 가족은 그로부터 며칠 동안 가족 사진을 찍을 준비를 하느라고 자못 들뜬 분위기에서 지냈다. 복음 선교사로 봉사 중인 두 아들과 결혼해 멀리서 살고 있어 집까지 오는 데 드는 여행 경비를 마련하기 힘든 두 자녀를 제외한 전가족이 오기로 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 두 명이 넘는 웨스트모어랜드 가족이 사진 찍기에 참여하기로 했다.

안젤라는 이제까지와는 달리 가족 사진을 찍는 일에는 약간의 관심을 보였다. 더군다나 이것이 또 한 번 찍게 되는 작별 사진은 아니라는 확신이 들자 이번에는 좀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사진을 찍는 동안 이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새 언니, 오빠들이 안젤라에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었다. 안젤라는 관심을 온 몸에 받고 있는 것이 수줍으면서도 즐거운 듯했다. 안젤라는 웨스트모어랜드 가정에 온 이래 처음으로 얼굴에



미소를 띠기 시작했다.

사진을 찍고 난 뒤 작은 문제가 하나 발생했다. 웨스트모어랜드 형제는 안젤라에게 사진사가 찍은 사진을 현상한 후 틀에 넣어서 가져오려면 며칠이 소요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려 했다. “아직은 사진을 집으로 가져올 수 없단다.”라고 설명했지만 안젤라는 이해를 못했다. 갑자기 미소가 사라지더니 얼굴에는 실망스런 빛이 가득했다. 웨스트모어랜드 형제는 그 모습을 보자 마음이 무척 아팠다.

안젤라는 다시 혼자만의 세계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다. 그후 며칠 동안 나머지 가족들이 성탄절을 맞이 위한 사전 활동에 막바지 준비를 하느라고 분주할 때도 안젤라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성탄절 전야 늦은 시간, 안젤라가 잠자리에 든 후 초인종이 울렸다. 사진관에서 일하는 윌콕스 형제가 찾아온 것이다. 그는 웨스트모어랜드 형제에게 크고 납작한 꾸러미를 건네주면서 늦은 시간에 찾아와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다. 그가 돌아서 가려 하자 웨스트모어랜드 형제는 어깨 너머로 그를 쳐다보면서 “우리 모두에게 이상적인 성탄절이 되겠군요!”라고 밝은 목소리로 외쳤다.

웨스트모어랜드 형제는 조심스럽게 포장을 풀고 가족 사진을 꺼내 가족들이 즐겨 모이는 거실 벽난로 선반 위에 이것을 걸어 놓았다.

다음 날 아침, 가족이 크리스마스 트리 주변에 모여 선물을 뜯어 보고 있을 때, 웨스트모어랜드 형제는 안젤라 모르게 자신이 만들어 준 밝은 색상의 인형집을 안젤라가

경계하는 자세로 바라보자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

그렇지만 선반 위에 걸린 새로운 가족 사진을 보는 순간 안젤라는 머리 위로 양팔을 뻗으면서 상기된 목소리로 “나예요. 가족 한 가운데 내가 있어요!”라고 소리쳤다. 그후 몇분 동안 웨스트모어랜드 가족 사진 속에 있는 자신을 바라보는 어린 소녀의 가슴속에서는 그동안 차곡차곡 쌓여왔던 감정이 막힘없이 길으로 쏟아져 나왔다.

그러다가 안젤라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지더니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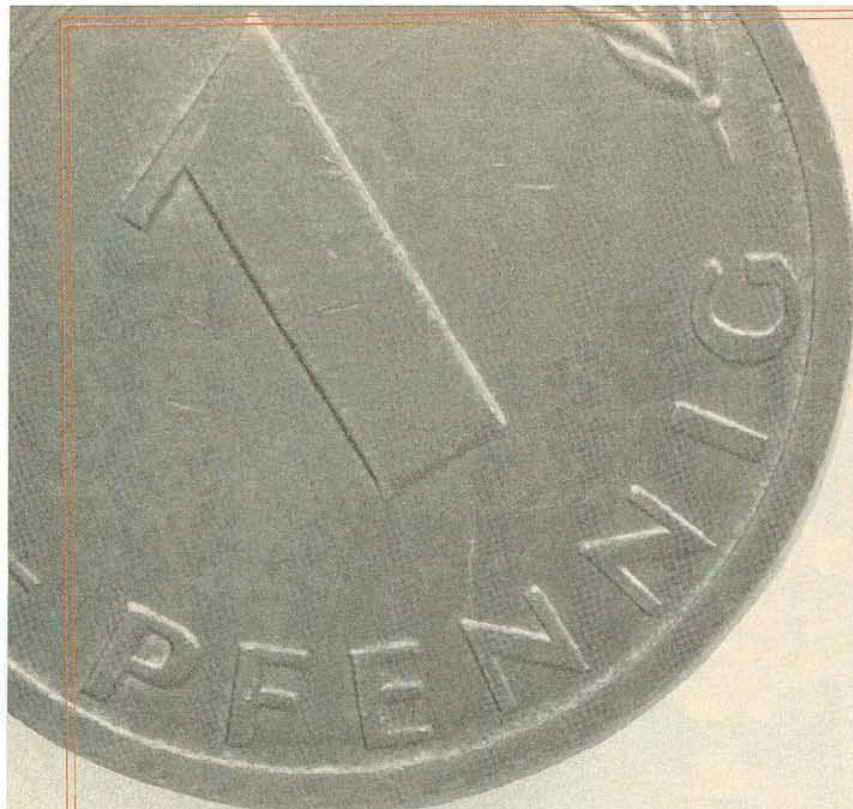
안젤라는 액자 바로 밑에 의자를 가져다 놓고는 가족 사진 있는 곳으로 딛고 올라갔다. 안젤라는 사진 앞에 있는 유리를 더듬으며 무엇인가를 찾아 보는 듯하더니 사진들을 조심스럽게 빼내서 뒤에서부터 살펴보기 시작했다.

안젤라는 마치 대답을 듣기를 두려워하는 듯한 표정을 하고 웨스트모어랜드 형제를 향해서 “내가 이곳을 떠날 시간이 되면 사진에 있는 나를 어떻게 빼버릴 건가요?”라고 물었다.

웨스트모어랜드 형제는 어린 딸을 끌어안고 “안젤라, 네가 우리 가족 사진이나 우리 가족으로부터 빠지는 일은 결코 없을 거야.”라고 대답했다. 웨스트모어랜드 형제는 행복에 찬 소녀가 그를 꼭 껴안고 있는 동안 안젤라가 드디어 가정을 찾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엠 시 오브라이언 형제는 캘리포니아주 콩코드 스테이크의 공보 책임자로 봉사하고 있다.





조그만 동전 세 개

리차드 에이 램

아들은 자신의 아버지가 한 일을 본대로 행했다.

감 독이 된 후 처음으로 맞이한 성탄절 무렵에 우리 와드에는 세 명의 어린 자녀를 둔 홀어머니가 한 분 살고 있었다. 이 젊은 어머니는 복음에 대해 강한 간증을 갖고 있었으며, 능력이 허락하는 한 최선을 다해 이에 따라 생활했다. 그녀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파출부로 일하기도 하고 샴바느질도 했지만 때로는 일거리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

여덟살 미만의 세 아들을 혼자 힘으로 키우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이 한창 극성스럽고 활발한 시기에 있는 자녀들은 언제나 이런 저런 말썽을 피우는 듯 했다. 그 아이들이 친구들과 싸우는 것을 내가 말린 일도 한 두 번 있다.

몇몇 훌륭한 분들이 재정적으로 궁핍한 이 가족을 도와 주었다. 성탄절이 되기 몇 주일 전 어느 일요일에 내 사무실을 찾아와 나와 은밀한 이야기를 나누자고 요청한 어떤 형제가 있었다. 그는 그 젊은 어머니와 그 가족에게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그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어 했다. 그 독지가의 기부를 받아들여 그 가난한 가정을 위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나는 그의 어린 아들이 사무실에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거의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 사람은 이 자매와 그녀의 가족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모른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저 도움을 주고 싶어 했으며, 내가 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영감으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내게 상당한 액수의 돈을 내놓았다. 즉, 금액 자체가 상당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넉넉치 않은 그의 수입에 비추어 볼 때 그 성의가 대단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최소한 세상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러한 선물은 그의 가족이 성탄절을 희생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 현명한 형제는 참된 보상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결의에 찬 그의 눈빛을 보면서 나로서도 어쩔 수가 없었다. 이윽고 나는 마음에서 북받쳐 오르는 감동을 억제하면서 그의 그러한 사심없는 기부에 감사를 표했으며, 그 젊은 어머니와 아들들을 위해 좀더 따뜻한 성탄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노라고 약속했다. 또한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그의 부탁을 흔쾌히 수락했다.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다고 해도 여전히 이를 기억할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내 마음에 이러한 경험을 깊게 아로새겨놓은 일은 아직도 남아 있었다. 즉, 이는 이와 같은 이타적인 현금으로 내가 그 가족을 도와줄 수 있었던 방법 자체를 뜻한다기 보다는 - 비록 그 일이 아주 훌륭한 결과를 낳기는 했지만 - 그 훌륭한 형제의 방문이 있는 지 일주일 만에 내 사무실에서 발생한 일을 두고 하는 말이다.

성탄절이 되기 며칠 전 나는 십일조 결산을 위한 접견을 하고 있었다. 사무실 문을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문을 열었더니, 일주일 전 일요일에 나와 그의 아버지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내 사무실에 조용히 앉아 있던 여섯살 난 소년이 혼자 서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소년은 잠시 나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는지 정중한 태도로 물었다. 사무실로 함께 들어온 뒤 - 어린 소년들이 감독 사무실에 들어오는 것은 다소 떨리고 두려운 일일 것이다. - 나는 소년에게 앉으라고 권했다. 소년은 주머니에서 무엇인가를 만지작거리더니 잠시 후 조그만 동전 세 개를 꺼내어 내 책상 위에 올려 놓았다. 소년은 그것이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의 전부라고 사과를 했다. 그 동전들은 소년이 한동안 갖고 있었기에 다소 지저분했다. 소년은 자기 아버지가 세 친구의 어머니를 도와드렸듯이 그 돈을 그들을 돕는 데 써달라고 내게 부탁했다. 나는 마음이 북받쳐오르며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고였다. 소년은 내가 그의 친구들에게 자신의 값진 선물을 나눠 주는 방법을 가장 잘 알고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나는 그 순간 소년의 아버지의 사심없는 모범과 소년이 감독에 대해 갖는 신뢰 및 순진무구한 마음과 그리스도를 닮은 겸손한 행동을 통해 더없이 소중한 교훈을 얻었다. 이런 일이 있기 몇 주일 전만 해도 나는 그의 관대한 사랑과 용서를 받게 될 친구들과 다투던 이 소년을 싸우지 못하도록 말리지 않았던가!

한편으로는 흐르는 눈물을 감추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에게 얼마나 감사하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말해주기 위해 나는 소년을 안아주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소년을 문까지 데려다 주고 악수를 하면서, 이번 성탄절에 소년이 준 너그러운 선물로 그의 친구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노라고 확신시켜 주었다. 사무실로 돌아오려는 데 소년이 내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감독님, 제가 드렸다고 누구에게도 말씀하시면 절대로 안돼요."

'나의 어린 친구여, 나는 지금껏 어느 사람에게도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대네.' 나는 다른 사람들이 그날 우리가 느꼈던 사랑과 자비라는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도록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특별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도 괜찮으리라고 생각한다.

리차드 이에 랍 형제는 미네소타주 로체스터 소재 메이요 병원에서 의학 연구를 하고 있는 과학자로서 현재 미네소타주 로체스터 스테이크 부장이다.



볼짜노에서 보낸 성탄절

페트릭 손 홉킨스

크 리스마스 전야에 나는 스토우트 장로와 함께 밖으로 다시 나가기 전에 먼저 기도를 드리기로 했다. 마지막 약속을 마치고 돌아온 뒤라서 나는 이탈리아의 살을 에이는 듯한 흑한의 냉기 속으로 또 다시 발을 들여놓기가 정말 싫었다. 하지만 내 동반자는 우리가 함께 계획한 성탄절 프로그램을 위한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성탄절에 특별히 갈 곳이 없는 분들에게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성탄절 동안 외롭고 슬퍼하는 이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소서.”라고 기도 드렸다.

스토우트 장로가 구도자들에게 주고 남은 성탄절 선물인 종이 가시나무와 알루미늄 은박지로 밑등을 싸 장식한 다섯 자루의 촛대를 챙기자, 나는 하는 수 없이 몇분 전 그렇게 열심히 끝냈던 단추를 다시 채웠다. 우리는 성탄절 전야에 갈 곳이 없어 배회하는 사람들에게 불러주기 위해 “주 믿는 신도여” 찬송 연습을 하기 전부터 몇 주일 동안 이 선물들을 손수 준비했었다.

우리는 냉랭하고 황량한 볼짜노 거리로 나갔다. 나는 약간은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용기를 북돋아줄 사람을 찾고 있었다. 나는 이탈리아에 온 지 불과 20일 밖에 안되었으며, 비록 선교 사업에 대한 열의는 갖고 있었지만 모르는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그들에게는 관심이 없어보이는 듯한 것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언어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

한 남자가 우리의 시선을 피한 채 우리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다. 우리는 그 사람의 걸음을 멈춰 세우고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우리가 만든 촛대 하나에 불을 붙여 그에게 전해주면서 노래를 불러 주었다.

우리가 캐롤을 부르는 동안 시종일관 먼 곳을 향해 있던 그의 시선이 변하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와 더불어 참으로 화사한 온기가 돌았다. 나는 기분이 좋았다. 그 사람은 새로운 활력을 얻어서 돌아갔고, 그날 저녁 계획에 대한 내 태도도 변화되었다. 어쨌든 우리는

좋은 저녁을 보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고 나서 도심을 향해 걸던 중 우리는 백발의 노인을 만나게 되었다. 노인은 두꺼운 외투를 입고 왼쪽 팔 밑에는 목발을 짚은 채 다리를 절며 걷고 있었다. 스토우트 장로는 그 사람이 내가 이탈리아에 오기 전에 함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던 사람임을 알아차렸다. 우리는 그 노인에게 촛불을 주고 캐롤을 불러 주었다.

그는 감격해 하여 강한 독일 사투리가 섞인 이탈리아어로 “나와 함께 거주지 않겠습니까? 나는 지금 교회로 가던 중입니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노인과 걸음의 속도를 맞추어 마을을 향해 천천히 발을 옮기기 시작했다. 걷는 중에도 스토우트 장로와 그 노인은 계속 이야기를 했다.

둘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나는 우리 구도자를 면밀히 살펴보고 그가 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목발을 짚고 있는 손에 장갑을 끼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왼 손에 이 장갑을 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억지로라도 노인에게 장갑을 끼워주려고 했다.

노인은 “아니 괜찮아요. 수년 전 나는 지금 입고 있는 것보다도 못한 상태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러시아에서 겨울을 보낸 적이 있어요. 이 정도는 그때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거절했다.

교회가 가까워지자 많은 회원들이 밖에 나와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우리와 같이 가던 노인은 그 사람들을 향해 “여러분, 이 미국인들이 여러분들에게 노래를 들려주고, 선물도 주고 싶어 합니다.”라고 소리쳤다. 우리가 계획한 것이 꼭 그와 같은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우리는 노래를 불렀으며, 남아있는 세 개의 촛대 가운데 하나를 건네 주었다. 노인은 옆으로 물러서서 미소를 지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추위는 더욱 심해졌다. 그래서 노래를 마치고 나서 스토우트 장로와 나는 노인에게 시린 손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의 장갑을 받아 끼도록 권했다. 이번에도 역시 그는 수년 전 러시아에서 겪은

천사는 언제나 멋지게 축 늘어진 백색 성의를 입고 있지는 않으며, 다양한 모습과 피부색을 하고 있고 여러 국가로부터 올 수 있다. 어떤 천사는 목발을 짚고 걸기도 한다.

겨울 추위는 이보다 더욱 혹독했다는 설명을 했다.

그때 차 한대가 교회 가까이에 멈춰 서더니 옷을 잘 차려입은 한 여인과 그 여인의 아들이 내렸다. 그 소년은 일년 중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날 전야에 억지로 교회에 가야 하는 것이 마음이 상한 나머지 크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어머니가 그를 달래는 동안, 노인은 우리에게 그들을 보라는 몸짓을 했다. 힘들여 걷고 있는 그의 뒤를 쫓아가고 있는데 노인이 “얘야, 이 미국 청년들이 네게 캐롤을 불러 주고 선물도 주고 싶단다!”라고 소리쳤다.

우리는 무릎을 꿇고 그 소년의 눈을 마주보면서 선물을 주었다. 휘둥그런 눈에 조용한 성격을 가진 소년은 우리가 열심히 연습해 준비한 캐롤을 부를 때 주의깊게 청취하였다. 노인은 이 모습을 시종일관 매우 즐거운 듯이 미소를 지으며 지켜보고 있었다. 노래를 마치고 일어서서 소년의 어머니에게 성탄을 축하한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캐롤을 듣는 동안 울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소년의 어머니는 우리에게 미소를 지어 주었다. 우리가 무어라고 말하려는데 먼저 노인이 산타 크로스가 무색할 정도로 그들에게 즐거운 성탄이 되도록 소망을 빌어 주었다.

우리도 노인을 따라 즐거운 성탄을 맞이하기를 바란다라고 인사를 한 후 몸을 돌려 노인을 향해 아직도 촛대가 하나 더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줄 사람을 찾게 될 때까지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은 땅바닥을 웅시하더니 이윽고 우리에게 몸을 돌려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어쨌든 여기는 너무 사람들로 혼잡하니 이곳보다는 작은 교회로 함께 가봅시다.”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는 그 노인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가겠다는 소리를 듣고 기뻐하면서 우리는 다른 교회를 찾아 나섰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한적한 거리를 지나 어떤 예배당으로 우리를 인도했지만 그곳은 이미 문이 닫혀 있었다. 기온이 점점 더 떨어지자 노인의 손이 자꾸만 생각났다. 동시에 만일 내가 맨손으로 목발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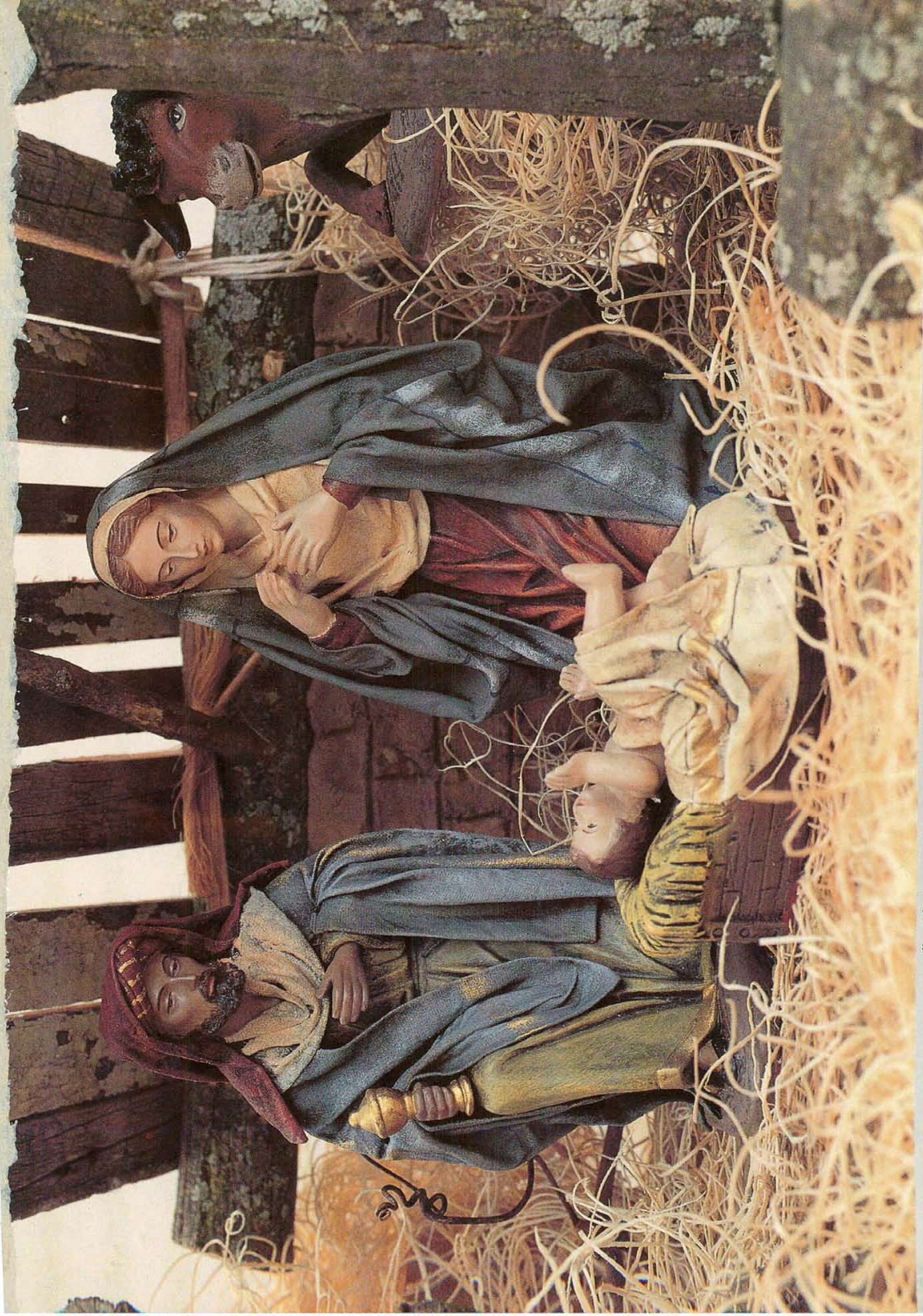
의지한 채 똑같은 모습으로 것처럼 혹한에 노출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도 상상해 보았다. 우리는 둘 다 노인에게 장갑을 끼도록 권했지만, 노인은 다시 한번 이를 거절했다.

교회에서 일어나오면서 우리는 가련한 모습으로 거리를 따라 걷고 있는 십대 소녀 두 명을 보게 되었다. 곧이어 우리의 친구가 소리쳤다. “여기 좀 보세요. 이 미국 청년들이 아가씨들에게 노래를 불러주고 선물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촛대가 두 개가 아니라 한 개 뿐이라서 입장이 난처해졌으나 아무튼 우리는 초에 불을 붙여 그들 중 한 소녀에게 주었다. “다른 소녀는 어떻게 하지요?”라고 노인이 물었다. 마지막 남은 촛불을 이제 막 건네주었다는 스토우트 장로의 설명을 듣고 난 노인은 “잠깐만요!”하고 소리치더니 자신의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다. 노인은 우리가 자신에게 준 초를 꺼내어 다른 소녀에게 전해 주었다. 노인이 곁에서 미소지으면서 기다리는 동안 스토우트 장로와 나는 캐롤을 합창했다. 소녀들도 따라 미소를 지었다.

소녀들이 가고난 뒤 스토우트 장로는 “이젠 마지막 남은 촛불까지 다 주었으니 집에 갈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노인은 먼저번 교회가 있는 데까지 우리와 함께 가겠다고 말했다. 교회가 있는 곳까지 와서 우리는 서로에게 성탄절을 축하해 준 다음 헤어졌다.

아파트로 돌아온 스토우트 장로와 나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렸다. 우리는 몇몇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슬픈 얼굴들에 조금이나마 화사한 빛을 비추어 주도록 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렸다. 뿐만 아니라 천사가 언제나 멋지게 축 늘어진 백색 성의를 입고 있지는 않으며, 다양한 모습과 피부색을 하고 있고 여러 국가로부터 올 수 있다는 교훈을 얻게 해주신 사실에 대해서도 감사드렸다. 어떤 천사는 목발을 짚고 걸기도 한다. *

페트릭 손 홈킨스 형제는 뉴욕주 뉴욕 스테이크 맨해튼 1와드 회원이다.



“스페인 고유의 그리스도 탄생에 관한 장면”, 푸이 로베라 작품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겸손히 무릎을 꿇고 있다. 점토를 구워 만든 이 공예품은 기를 섞은 옷을 입고 있다. 이 의복은 풍부한 스페인 고대 문화를 반영해주고 있다.



흥

콩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탄생 장면은 대나무로 만든 것이다. 이전에는 마리아와 요셉 및 세 명의 동방 박사들은 진지하게 기도 드리듯이 팔을 모으고 있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대나무가 말라서 쪼개지면서 마리아와 동방 박사 두 명은 그 탄생의 기적을 팔을 벌려 환영하는 듯이 보인다. “그리스도의 탄생 장면” 34쪽 참조